

# 이사야2

34-66

## 이사야 2

2020년 4월 29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 이사야 2

34-66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이사야 2

34-66



## 작성

이사야 34:1-17   정한조	이사야 50:1-11   정재규
이사야 35:1-10   정재규	이사야 51:1-23   이영란
이사야 36:1-22   이창호A	이사야 52:1-15   정한조
이사야 37:1-38   정한조	이사야 53:1-12   김대인
이사야 37:1-38   정한조	이사야 54:1-17   박성호
이사야 38:1-22   정인철	이사야 55:1-13   정한조
이사야 39:1-8   이영란	이사야 56:1-12   정인철
이사야 40:1-31   정한조	이사야 57:1-21   김광욱
이사야 41:1-29   강요섭	이사야 58:1-14   정한조
이사야 42:1-25   이창호E	이사야 59:1-21   임용완
이사야 43:1-28   정한조	이사야 60:1-22   이창호A
이사야 44:1-28   이성실	이사야 61:1-11   정한조
이사야 45:1-25   김광욱	이사야 62:1-12   김소리
이사야 46:1-13   정한조	이사야 63:1-19   이영란
이사야 47:1-15   이성유	이사야 64:1-12   정한조
이사야 48:1-22   임용완	이사야 65:1-25   김완영
이사야 49:1-26   정한조	이사야 66:1-24   오웅식



#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이사야 34:1-17

1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  
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2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  
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 당하게 하셨은즉 3 그 살륙 당한 자는 내던  
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죄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5  
여호와와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  
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6 여호와와 칼  
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  
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7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  
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흠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9 에돔의 시  
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  
청이 되며 10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  
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11 당아새  
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즉 12 그들

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3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콤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16 너희는 여호와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입을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7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 종말에 행할 심판의 예언(1-8)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35까지의 ‘화와 복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35장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13-23장까지에서 유대와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의 종합 요약이기도 하고, 또 에돔을 들어서 말하는 구체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1-8절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1)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열국(모든 민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라고 3번을 반복합니다. 성경의 3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의 강조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겹세마네에서의 3번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자기 몸의 가시 제거를 위한 3번의 기도도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열국들, 민족들, 온 세계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전통 강대국이자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앗수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후발 강대국이자 중동지역의 새로운 패권자가 될 바빌로니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나라는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3)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 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륙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약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2절은 ‘대저(大抵)’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대저’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체로 보아서’입니다. 그런데 ‘대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키’는 원인과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대저’보다 ‘왜냐하면’이나 ‘그 이유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의뢰해야 하는 것이 애굽이나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시는 대상이 열방의 ‘만군’입니다. 유다는 물론이고 열방들은 자신들의 만군, 군사력을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당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멸하다’도 구별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바쳐 철저하게 파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와 진멸하다는 둘 다 영적인 구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 살육을 당한 사람들이 ‘내 던진 바’가 된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죽은 시체들이 수습되지 못하고, 그저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시신은 고이 수습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례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여 대규모로 죽음을 당하거나, 흑사병과 같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면 한꺼번에 매몰하거나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중동지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습되지 못한 시신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산에 많은 흙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산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피가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그 날에는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5-7)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와 칼이  
피 곧 어린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리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흠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하는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에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  
다. 즉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와 칼’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문자적으  
로는 ‘나의 칼’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  
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번제와 속죄제 등을 드  
릴 때 짐승을 희생제물 삼아 드립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  
하고 그것을 잡음으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을 잡는 것  
으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돔을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  
니다.

(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것은’은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즉 ‘에돔이 희생제물이  
되어 심판을 받는 이유는’입니다. 그날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  
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날인가 하면, ‘시온(예루살

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 심판이 이루어진 후 땅의 상태(9-17)

9-17절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땅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9-10)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에돔이 불타는 역청과 유황으로 황폐해 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에는 물이 흘러야 하는데, 물이 아니라 역청(아스팔트)이 흐르고, 밭에도 부드러운 흙이 있어야 보리와 밀, 그리고 채소 등을 심을 텐데 역청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불까지 붙어 있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고, 황폐하여져서 더 이상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돔이 철저하게 파괴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15

절은 황량하게 된 에돔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11-15)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뽕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역청과 유황으로 불타버려 황폐화된 에돔에 온갖 동물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아새’는 사다새\_펠리컨(pelican)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올 올빼미(owl)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새가 어떤 새이든지 간에 그 등지를 인적이 없는 곳에 틀기 때문에, 이 새가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에돔 땅이 황폐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는 ‘해오라기(screech owl)로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고슴도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 외에도 에돔 땅에 부엉이와 까마귀가 살 것이라고 합니다.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는 모두 레위기에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런 야생 동물이 사람 대신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곳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3-14절의 승냥이(자칼), 타조, 이

리, 솟염소, 올빼미 등의 짐승이 등장하는 것도 에돔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신다고 하십니다. 본래 이 줄과 추는 건축을 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특히 ‘혼란’은 ‘엇켜있음’이라는 의미이고, ‘공허’는 ‘텅빔’이라는 의미인데, 이 두 표현은 창세기 1:2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와 같은 표현입니다. 에돔이 얼마나 황무한 상태가 될 것인지를 아주 진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을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고, 심지어 지방 호족들도 없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또한 솔개들이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일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사자들이 들소를 잡아서 먹고 나면, 독수리들이 여러 마리가 날아와 남은 먹이를 서로 먹겠다고 날개를 퍼덕여 싸우곤 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얼마나 황폐하여 죽은 사체가 많은지, 솔개들이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짝과 함께 천천히 먹어도 먹이가 남아도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6년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최악의 원전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곳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동물들의 천국이 되었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돔에 초대형 화산이 터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동물만 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오해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자세히 읽어보라)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모으셨기 때문이다”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르지 못한 해석인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책’을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까지는 글로 쓰여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황폐화된 에돔에 짐승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경이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17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17)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제비를 던져서 에돔에 살 짐승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암수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뽑힌 짐승들이 대대로 거기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는 에돔이 재건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를 에돔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는 유대인이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의 시범 케이스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조용히 지나갈 터이니 길을 좀 지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no!”라고 했습니다.

또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것이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할 때에 가서 돕지는 못할망정,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겉은 유대인과 비슷했을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지막을 먼저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 않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우리는 영원한 시각에서 해피엔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걸사람도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국가였지만, 그들의 속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걸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속도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게 하시므로, 우리 삶의 구석 구석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경험한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또 그것의 마지막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2.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에돔은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부분들 가운데, 과거에는 은혜가 풍성하였지만, 지금은 잡초가 무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3.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이사야 35:1-10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  
 름다움을 보리로다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  
 게 하며 4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  
 를 구하시리라 하라 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  
 의 귀가 열릴 것이며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떨 것이며 말 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  
 가 흐를 것임이라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  
 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 거  
 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 여호  
 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  
 이 사라지리로다

##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1-10)

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34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심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들린 자들의 결국은 철저한 파괴와 황폐함뿐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의 결국은 회복이고 영광스러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징계의 목적성은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실 때에 망하기를 목적 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 망하지 않게 하기를 목적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징계를 말씀하실 때도 그 안에는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향한 징계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안에 녹아 있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간절한 회복과 사랑의 열망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를 곧추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 새번역)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 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화와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이 등장하는데, 레바논은 백향목의 주요산지인데, 이 나무는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이 나무는 힘과 영광으로 상징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갈멜과 샤론은 둘 다 농사짓기에 최적인 비옥한 땅입니다.

사막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런 모습이 사막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백합화와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며, 레바논, 갈멜, 샤론과 같은 영화가 우리 삶을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7)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눅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구절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

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가 눈을 뜨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절던 자는 뛰고,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 노래를 부르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셨고, 듣지 못하던 영적 귀를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서 물이 솟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승냥이만 서식할 수 있던 황폐한 곳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종말과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종말에 얻게 될 영원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고통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과 탄식도 있고, 부당함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이 다 하는 날 그날 우리에게는 지나온 그 길 속에서 흘려야만 했던 눈물이 충분히 씻겨지는 온전한 회복과 영광스러움을 입고 또 10절 말씀처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9절 말씀처럼 황무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도 영광스러움을 얻는 그날까지 그 어떤 들짐승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을 '대로' 즉 '거룩한 길'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에도 소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막힌 벽 아래에서도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꽃이 피워지며,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소망과 그로 인한 평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4, 새번역) 너희는 맥폴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에게 믿는 그 소망에 관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믿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건져낼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 소망의 얘기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 주님만을 소망삼고, 그 힘으로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며 주님의 격려와 힘의 통로로 쓰임 받는 하루이길 또한 소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주님! 눈을 열어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주님의 징계에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 안에 묻어있는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곧추세우고, 다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어졌지만 언젠가 반드시 도달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오늘을 보고 오늘을 가치를 바로 인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징계 속에 숨어 있는 진의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 나라와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언젠가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4. 내가 진정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입술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사야 36:1-22

1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2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3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4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 내가 말하노니 내가 죽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찢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7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9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10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와 뜻이 없음

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  
 셧느냐니라 하니라 11 이에 엘리아김과 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  
 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12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  
 더라 13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  
 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  
 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 히스기야  
 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  
 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  
 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  
 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17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  
 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18 혹시 히스  
 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  
 느냐 19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  
 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하니라 21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  
 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  
 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22 그 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  
 아김과 서기관 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

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이전의 본문들과 달리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까지의 말씀과 광범위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에 묶이지 않았다는 정황들을 고려한다면, 거의 같은 텍스트가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늘 경솔하게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에 기록된 여러 정황들이 이사야서에서는 생략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고, 성전 문의 금을 비롯한 모든 금을 벗겨 아시리아에 갖다바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는 생략되어 있고, 열왕기에는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었던 랍사게 외에도 다르단과 랍사리스를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만 이사야서에는 유다 방언으로 말했던 랍사게만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정치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제의적인 영역에만

가둬두려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자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으며, 히스기야는 팽창하던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친이집트 정책을 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양자를 다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유다가 의지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하며, 아시리아를 배반했습니다(왕하18:7). 그의 배반으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이집트는 가만히 앉은 라합(사31: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국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유다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한 산헤립은 무서운 속도로 히스기야를 새장 안에 든 새처럼 가둬버립니다. 유대 산지와 해안 평야 지대 사이의 세펠라 지역, 여러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그중 최남단의 라기스에 머무르며 혹시 모를 이집트의 도발에 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아시리아 산헤립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랍사게가 섰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처음 나온 장소가 아닙니다.

(사7:3)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삽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곳은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랍사게는 이곳에서 산헤립의 말을 전합니다. 비록 메시지를 선포한 화자와 청자, 선포된 시점까지 모두 다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포악한 인간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랍사게의 말1 -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4-10)

지금 랍사게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 자신이 섬기는 왕 산헤립의 말을 전합니다. 랍사게가 전하는 산헤립의 말의 요지는 “애굽으로부터는 구원이 없다”입니다.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외친 목적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를 듣고, 동요가 일어나, 안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6)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찢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이집트를 “상한 갈대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지팡이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의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갈대 지팡이인 데다가 시들어버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같이 의지할 만한 대상인 듯하나 사실상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대상이 바로 이집트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랍사게의 이 말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디르하카(실제로 이사야 37장의 문맥에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는 장군이었으며,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이집트를 정복하여 다스리던 25왕조의 통치자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로 푹푹 뭉친 왕조가 아니라 그 지배층들마저 정복민들이라면, 이집트는 군사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투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군사를 동원하는 것조차 대단히 버거웠겠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랍사게의 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0장과 31장에서 이미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30:2-5, 7; 31:1-3).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비통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나라의 중요한 도시들이 다른 나라 군대에 유린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도까지 포위를 당하여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후회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할 때 들을 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걸,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충고가 빠져리게 아프더라도 그 말 중에 하나님의 뜻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비통함이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듣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새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랍사게는 아시리아를 대항하면 살아날 수 없음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말 2,000마리로 표상되는 군사강국의 면모를 어김없이 과시하며,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7)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10)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리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집트와 유다의 연결고리를 끊고, 계속해서 유다를 아시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정치적 계산을 감춘 채 하나님의 뜻을 들먹입니다. 분명 성전의 역할을 복원하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산당 제사를 철폐했던 히스기야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었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전에서 온전한 여호와 섬김이 일어나도록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유다 전역에 편만하던 여호와 신앙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에서만 그 명맥이 유지되도록 만든 실패작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모두 허문 일로 여호와가 진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백성들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백성들 중에서는

르호보암 이후에 계속되었던 산당을 없애는 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내부의 분열을 의도하고, 어떻게든 히스기야의 행적에 흠집을 내야 하는 위치에서 이런 말들을 내뱉지만, 실제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의 과거를 부정당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만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지나온 모든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었다고 해서, 히스기야의 지난 모든 치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모든 순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포위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버틸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내부에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 실로암 못에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당을 없앤 일은 더더욱 잘한 일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을 부정하려는, 사탄의 말에 가까운 랍사게의 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계속해서 바로 서려는 노력을 경주하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 랍사게의 말2 - 항복하라(11-22)

랍사게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히스기야를 버리고 항복하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16-17)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랍사게는 대단히 교활합니다. 거짓약속을 앞세우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점령한 시리아 지역의 성읍들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리아 지역의 수많은 신이 우리에게 굴복했으니 여호와 역시도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아시리아는 자기들의 힘을 믿고, 힘이 약한 유다의 여호와를 모욕합니다.

항복하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이주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듯합니다. 아주 그럴 듯해보이지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

씀을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해야 하는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이가 누구인가? 아시리아의 산헤립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인생을 살아 아시리아를 물리칠 것인가, 산헤립의 말에 굴복하여 그가 주겠다고한 유사 복, 거짓 복을 바라만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 생각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 프로젝트만 잘 해결되면, 내 앞길이 확 열릴 것 같고, 이 거래만 성사되면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면, 저 회사에만 입사하면, 저 상을 받으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조차도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여 위기를 자초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새삼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일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내뿜는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심지를 더욱 굳건히 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업이시며, 우리의 살 길이 되심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사 말씀 붙들고 살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 9절)
2. 랍사게가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16-17절)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신11:14-15)을 비교해보세요.
3.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그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정리해보세요.
4.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른다는 말은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함께 살아감을 뜻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바뀌어야 할 인식과 태도는 무엇인지 고민해봅시다.

## 천하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37:1-38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갔고 2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  
 들도 굵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  
 도다 4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  
 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  
 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  
 이다 하니라 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  
 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  
 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  
 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8 앗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  
 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립나를 치고 있더라  
 9 그 때에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기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  
 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  
 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10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앓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앓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12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니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14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 여호와여 앓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라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앓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22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3 네가 훼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24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훼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

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5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밭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26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  
 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  
 였노라 27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  
 의 풀 같이, 푸른 나물 같이, 지붕의 풀 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28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  
 노라 29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  
 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  
 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0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  
 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이다 31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  
 로 열매를 맺으리니 32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  
 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  
 이다 3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흥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34 그가 오  
 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  
 니라 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6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  
 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7 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  
 셸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예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 아시리아의 항복경고와 히스기야왕의 대응(1-20)

이사야 36-39장까지 네 장은 히스기야왕 시대에 있었던 3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36-37장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유다 침략에 대해서, 38장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왕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그리고 39장은 바빌론의 왕이 보낸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왕이 행한 실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37장은 B.C. 701년 경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집어삼킨 산헤립은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서 항복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으며 조롱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히스기야왕을 버리고 항복하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고 사탕발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이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중에서 1-7절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위협을 들은 히스기야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3)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왕은 사절단을 통해 아시리아의 랍사게 장군이 말한 것을 듣고(쉐마, 집중해서 듣다), 옷을 찢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장례 때에 입는 것으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장례 때에 검은 양복과 한복을 상복(喪服)으로 삼지만, 과거에는 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었습니다. 삼베로 옷을 입었던 것은 히스기야왕만이 아니라 궁내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셉나와 원로 제사장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왕의 말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환난’, ‘책벌’, ‘능욕’과 ‘해산할 힘이 없음’이었습니다.

‘환난’은 움짱달썩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좁은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상태에 있어서 대적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책벌’은 ‘징벌’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유다가 그 지경이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신뢰하려고 했던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또한 ‘능욕’은 ‘신성모독’을 뜻하는 말입니다. 랍사게가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36:20)”라고 망언

을 했는데, 그러한 수치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은 가정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하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임신부에게 아기를 출산할 힘이 없다면, 임신은 임신부에게나 태아에게나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왕절개 수술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국난의 위기에 히스기야왕은 단지 하나님께 도우심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왕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사기를 진작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水源)을 확보하고, 적에게로 가는 물줄기는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7)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샤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7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보라’라는 감탄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꿈에서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또 철옹성과 같이 보였던 여리고성이 함성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단 300명의 병사로, 게다가 무기도 없이 나팔과 횃불, 향아리만으로 미디안의 연합군대 12만 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라’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보라’의 결과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예루살렘은 산헤립의 군대에 삼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초긴장의 상태에서 랍사게는 자신의 주군인 산헤립 왕이 주둔하고 있던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도 돌아가다가 ‘랍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왕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구스(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시 사신들을 히스기야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 말에 속지 마시오. 아시리아의 선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했

는지 잘 알고 있죠?”라고 기고만장한 메시지(통고문)를 보냈습니다. 그 통고문을 받고 히스기아왕은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14-17) 히스기아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처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히스기아왕은 투항할 것을 요구하는 두 번째 통고문을 받았습니 다. 첫 번째 보다 충격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아왕은 그 글을 받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어떤 일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아왕의 기도의 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아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차바)’은 ‘땅과 하늘의 모든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군대 계급으로, 별이 3개이면 중장(中將), 4개면 대장(大將), 그리고 5개면 원수(元帥)입니다. 원수는 군인으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에서 하나님은 계급은 별이 몇 개쯤 될까요? ‘만군’이니까 1만개? 아마

원수의 1만 배인 5만개도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왕은 하나님을 ‘천하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시리아왕 산헤립의 군대가 아무리 커 보여도, 영원한 총사령관은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 아시리아 산헤립의 패망과 유다의 구원(21-38)

21-38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산헤립을 책망하시고, 그의 패퇴를 선언하시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2)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히스기야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산헤립을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머리를 흔드는 것은 멸시와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조롱하였지만 이제는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처녀 딸’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녀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께서 책임질



것임을 피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28)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  
같이, 푸른 나물 같이, 지붕의 풀 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산헤립이 여러 나라를 쳐서, 침략을 당한 나  
라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공포에 질려서 마치 들의 풀  
같이, 자라지 못한 채로 있는 어린 풀같이, 지붕 위에 있는 잡  
초 같이, 또 자라다가 말라비틀어진 곡식같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품고 있는 분노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사람들의  
손은 짧을지 몰라도(힘이 약하다 = 손이 짧다), 나는 결코 짧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농부가 소의 코청을 꿰뚫어 코뚜레를 끼우듯이, 산헤립의  
힘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코에 코뚜레를  
끼우고, 맹견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듯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6-38)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사체뿐이라 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리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산헤립이 그렇게 기세등등하였을지라도, 그의 군인들 18만  
5천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으  
로 고국으로 돌아간 산헤립은 자신이 섬기던 니스룩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6-39장은 히스기야왕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 안에 역사 이야기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약간 의아하게 보일지라도, 유대  
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  
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전기 예언  
서’라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12소선지서’를 ‘후기  
예언서’라 부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역사서  
임에도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  
관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여겼기 때  
문이었습니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면,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산헤립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와 삶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울타리치고, 그 말씀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독립만세를 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총 속에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아시리아 산헤립의 군대로 인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지금의 히스기야왕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항복하라는 통고문을 받고서도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아니하고,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던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공격해 오는 산헤립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시리아의 군인들보다 영원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산헤립과 아시리아 군대와 같은 힘으로 다가오는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히스기야왕은 항복하라는 아시리아의 랍사게 장군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 때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2.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을 반복해서 겪은 일이 있습니까? 그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반복된 일을 겪음으로 깨달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히스기야왕은 두 번째에도 성전으로 가서 통고문을 펴 놓고 기도를 하였다)
3. 두려움과 놀림의 대상이었던 아시리아 산헤립의 군인 185,000명은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신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주님 함께 지어저 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1-22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6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 도를 물러가니라 9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0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11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2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음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베를 걷어 말음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맡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3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 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4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와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증보가 되옵소서 15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16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21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몽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 하였고 22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나 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에 대한 내러티브는 열왕기하 2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열왕기와 다른점이 있다면,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의 회복에 있어 선지자 이사야의 역할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초점

이 있다는 것입니다.

###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1-8, 21-22)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 죽게 되어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니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3)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로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행동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헤립의 포위 속에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와는 사뭇 달라보입니다.

(37:1)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러한 차이는 질병과 회복,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못 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을 하던 초창기의 히스기야와 늘어난 삶의 연한 15년을 사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엮두해 본다면, 그의 기도의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질병과 회복이 어떤 촉매제가 되어 그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비약적인 논리를 가져오지만, 분명한 것은 발병과 회복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에서 그의 변화는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히스기야의 탁월한 신앙은 이 일을 이후로 비천한 수준으로 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지만, 히스기야는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6)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나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인해 눈물

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앗수르 왕으로부터의 구원의 약속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의 수환을 위협하는 것이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앗수르의 수많은 군대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급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질병을 포함해서 잊고 있던, 아니 생각하고 있지 않던 전쟁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표를 보이십니다.

(7-8)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 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와의 약속에 대한 징조로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약속의 주체, 그리고 징조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밝히셨습니다. 병행되는 열왕기하 20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의 본문은 히스기야의 구함과 그에 대한 이사야의 간구가 원인이 되어 이 징조가 결과로 나타났음을 밝혀준다는 점입니다.

(왕하 20:8-11)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낮게 하시고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열왕기의 본문은 이사야서와는 다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나가게 할 것인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이에 히스기야는 앞서가는 것보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더 어려운, 그래서 확실한 증표이니 뒤로 물러가기를 구했고,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히스기야의 선택대로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이 열왕기와 이런 차이를 두고 기록된 것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히스기야의 신실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존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질이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노래를 사이에 두고 21-22절에는 내러티브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화과 한 뭉치를 환부에 붙이라’는 이사야의 처방과 하나님의 전에 올

라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징조를 히스기야가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본문의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어둔 것은 치료의 역사에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38장 초반부 중심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편, 변질된 히스기야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여호와 의 징조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 그 대조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히스기야의 노래(9-20)

이제 히스기야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구약 안에는 다양한 노래가 존재합니다.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등. 이 노래들은 어떤 내러티브의 종결부에 기록이 되면서 내러티브가 강조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노래는 두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노래의 성격과 개인 탄식시의 성격입니다. 문맥에 비추어 본다면, 이 노래는 감사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10-11)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찾아온 때는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중

년의 때, 흔히 말하는 한창 때, 스올의 문, 죽음의 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처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12-14)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음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베를 걷어 말음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맡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 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양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목자의 장막과 직공의 베로 비유됩니다. 목자가 장막을 걷고, 직공이 베를 걷어 마는 것은 목자와 직공의 판단과 선택일 뿐, 장막과 베는 그를 따를 뿐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이 사자가 그 먹잇감을 죽이고 삼키듯이 순식간에 끝나 버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구슬프게 지지귀고, 비둘기와 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구원에 대한 간절한 요청 끝에 히스기야는 죽음으로 오는 불이익을 열거합니다.

(18-19)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죽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살아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오는 불이익을 열거하는 히스기야의 표현에서 삶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은 구원에 대한 기대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의 노래에는 죽음이 엄습해오자, 살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를 낮게 하시고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연장과 앗수르로부터의 구원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연장받은 삶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히스기야, 그가 늘어난 15년의 수한을 그의 노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냈다면, 그는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남은 여생을 역사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했다면, 그의 나라는 여전히 평화와 안녕으로 전성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매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못다 핀 한송이의 낙화로 삶을 마쳐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대로 지키고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마쳐지는 그 곳에는 흐드러지게 핀 꽃밭이 남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한 가정의 신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간다면, 가깝게는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리는 수많은 한국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운동에 동참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국가의 독립을 이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실천은 이 땅 대한민국이 정의와 자유, 평화가 있는 진정한 독립국가로 든든하게 세워져갈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결말은 비천함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탁월했던 그의 신앙은 자신의 생명만을 늘려가는 초라한 것에 불과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그의 간절한 기도를 삶으로 연결했다면, 분명 그의 삶뿐 아니라, 그의 나라가 모두 회복될 수 있었지만, 그는 늘어난 수명에 순종은 빼버리고 말았고, 그는 그저 못다 핀 한송이의 낙화로 삶을 마쳤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낙화가 아니라, 흐드러지게 만개한 꽃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는 믿음으로 먼저는 나의 삶이 지어져가고,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직장 and 학교가 지어져가며, 더 나아가 이 땅 대한민국이 바르게 지어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히스기야왕은 임박한 죽음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해봅시다.
2.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에 나라의 안녕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같이, 당면한 문제를 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3. 히스기야왕은 하나님의 응답이후 삶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묵상해봅시다.
4.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그 때에

이사야 39:1-8

1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왔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지라 2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3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4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음을 알고 바벨론 축하 사절단이 방문한 내용과 방문단을 맞이하는 히스기야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치유된 B.C. 701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앗수르 제국의 위세에 눌려 큰 힘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앗수르의 왕 산헤립을 피해 엘람 지방에 거하고 있는 동안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반앗수르 정책을 택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던 바벨론과 동반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국제 정세나 역사가의 증언을 감안하면 히스기야가 므로닥발라단과 군사적 동맹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동맹은 정치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보일지 몰라도, 신앙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예언하셨습니다.

#### 그 때에(1-2)

1절 말씀은 ‘그 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때’는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치유 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매우 고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했던 바벨론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것은 글과 예물인데 글에 해당하는 ‘썬파림’은 동맹 체결과 관련된 외교 문서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절단을 맞은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각종 보물과 모든 무기를 보여주었다고 2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국을 의지하며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체결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애써 입증하려는 것이었기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위험한 실수였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가 언제 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나라에 자신의 경제 규모나 군사력을 속속들이 다 알려준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불치병에서 고침 받은 히스기야는 분별력없이 자신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절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2절).

### 이사야의 질문(3-7)

하나님보다 이방민족을 의지하려는 히스기야의 인본적인 통치 방법과 그의 과시욕은 결국 징계를 선포 받습니다.

(3-4)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의 질문을 받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사절단에게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였다고 답변합니다(4절). 히스기야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강조하는 말투로 답변했을 뿐입니다. 급기야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최고 권력자 히스기야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6-7)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과 금지된 이방 국가와의 동맹 체결에 대한 징벌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금방 이 일이 닥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은 약 100여 년이 지나 B.C.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있었던 바벨론 침공에 의해 실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할 때, 결국 자신이 의지한 바로 그것에 의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히스기야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는 예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며(대하33:11-13),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왕의 계보가 끊기고 말았습니다(왕하25:7).

#### 히스기야의 반응(8)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에 굴복하여 그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이라는 참담한 예언을 듣고 난 후의 히스기야의 답변을 8절이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와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대답한 ‘좋소이다’는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불쾌하거나 속상하거나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답변은 학자들에 따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중심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자신에게만 이런 참담한 불행이 닥치지 않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것이 비록 비극적인 예언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언된 것이기에 선하다고 고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히스기야의 완전한 수용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의 고백을 직접 화법으로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녔던 히스기야,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놀랍고도 풍성한 이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자기 자랑을 일삼고 불신과 죄악의 자리에 들어서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

려운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이 연약하기 그지없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 내가 우상 삼은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총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풍성히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전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으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의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2차 북미회담장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을 기뻐한 히스기야처럼 최근에 나를 기쁘게 한 일이 있습니까?
2. 그 일로 인해 생긴 기쁨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3.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6-7절)을 들은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묵상해보십시오.
4. 내 삶의 평안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5. 내 삶의 견고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 40:1-31

1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찢먹이  
 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  
 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  
 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 누가 여호와와 영  
 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 그가 누구와 더  
 붙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  
 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  
 르는 먼지 같으리니 16 레바논은 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  
 에도 부족할 것이라 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엷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8 그런즉 너희가 하나  
 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시슬을 만든 것이니  
 라 20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  
 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  
 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  
 냐 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23 귀인들  
 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  
 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

집이 없느니라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위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 소망의 말씀(1-11)

총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1-35장과 36-39장, 40-66장입니다. 첫 부분(1-35장)은 윗시아-히스기야왕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둘째 부분(36-39장)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의 히스기야왕의 믿음과 죽을 병의 발병, 그리고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40-66장)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160년 후에 일어날, 유다 백성들의 바빌론 포로와 귀환에 관한 것과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11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종료되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성경 순서대로 번역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위로하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꼭, 반드시 위로하라는 의미입니다. ‘위로하다(나함)’는 단어는 ‘숨을 크게 쉬는 모습’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위험을 넘기게 되었을 때, “휴,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 ‘내 백성’입니다.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흥내만 내고 중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바빌론에서 노예로, 서글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수십 년을 살다보면, 거기가 고향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마음에 닿게 말하고(개역한글성경에는 ‘정다이’로 번역됨), 잘 들리도록 외치라(있는 힘을 다해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사람들이 정말 듣기 원했던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무게만큼 ‘금고(禁錮)\_강제노동을 하지 않음’나 ‘징역(懲役)\_강제노동을 함’을 받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약 50년 동안 바빌론 강가에서 울며 노동한 것으로 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패망한 것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도둑질하면 2배로 갚아야 하는 규정(출 22:9)이 있

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함으로 그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고난과 슬픔 등으로 삶이 짓눌리고 낙담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높여 주시고,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들은 낮추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포로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간, 자녀의 기간,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도 기간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을 목적 삼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6-8)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흐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육체(인생)가 풀이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도 시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면,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화무십일홍, 花無十日紅)는 말처럼, 인생이 짧음을 노래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고, 바빌론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권세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또 그 권세가 끝이 없을 것 같아도, 그 권세가 유한하기 때문에 풀이 마르듯이, 또 꽃이 시들듯이 끝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였던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마르고 시들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에 마르는 일도 없고, 지는 일도 없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합니다.

(9-11)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빌론에서 시온(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사실을 뜻하고,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적의 침입이나 전쟁터에 나갔던 아군이 돌아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설치했던 진지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뛰어난 장군이 포로로 잡힌 자기 병사를 데려오듯이, 영원한 장군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시는 모습으로, 또 목자가 양을 데려오듯이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이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때에 전국 팔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 독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년이 더 지난 후에 ‘아름다운 소식’인 해방을, 독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 비교 불가의 하나님(12-26)

12-26절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12-14절에서 ‘누가 ....을 했느냐?’고 반문하고 있

습니다.

12절에,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뿔으로 재었으며, 티끌을 되로 되어보았으며,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달아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13절에, “누가 주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의 조연자가 되겠느냐?”라고 반문 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하시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쳐 드린다는 말입니까?”라고 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답은 동일합니다. ‘없다’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영원히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세계 모든 나라는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 위에 있는 티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제국을 홍수처럼, 태풍이 휘몰아칠 때에 몰려오는 거친 파도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몰려오는 흙더미처럼 보였을지도 하나님께는 그저 저울에 붙은 먼지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26)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별은 누가 창조했는지 반문하시며, 그 많은 별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한과 유한, 영원과 순간은 비교할 수도,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 하나님을 양망하는 사람은(27-31)

27-31절은 비록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과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이 맺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려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이런 분이시라고 증거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지도 않고, 인간처럼 자주 포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할만한 지혜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포로로 보내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9-31)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주실 수가 있으셨지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목적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바빌론 제국은 참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제국도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았습니다. 또한 바빌론 제국은 거대한 물줄기로 내려오는 강물처럼 보이고, 거대한 산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저울에 붙은 티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제국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보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도 하나님보다 결코 크거나 강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양망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종으로, 세상과 죄를 향하여서는 언제나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깊게 다가왔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3.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피조물인 우리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 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4.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1-29

1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2 누가 동방에  
 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3 그가 그들을 쫓아  
 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4 이 일을 누가 행  
 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  
 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5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6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7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땀질이 잘 된다 하  
 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  
 였다 하였노라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 보라 네게 노  
 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



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  
 한 것 같이 되리니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오른손을 붙들  
 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  
 룩한 이이니라 15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16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흠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  
 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7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와 그들  
 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식딤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20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  
 리며 깨달으리라 21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  
 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 장차 당할 일을 우리  
 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  
 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 보라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25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26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 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28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29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40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실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징계를 받고 회개한 이후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회복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고레스를 세우실 하나님(1-7)

먼저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재판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열방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재판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재판을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어리석은 열방들의 죄악과 무지를 꾸짖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시겠다는 강조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향해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겨루어보라고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린 불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로 내세웠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증거를 열방과 민족에게 내세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냈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2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깨우신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무찌른 메대-바사왕국의 왕인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고 바벨론에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세우시고 열국을 그에게 넘겨주시며 왕들을 다스리고 그의 칼 앞에 모든 적들이 티끌과 겨같이 흩으시고 그들의 정복길을 안

전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구상 위대한 제국들을 세우시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4절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고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거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며 우리는 신문과 뉴스를 보고 하루는 평안을 꿈꾸다가 하루는 두려움과 실망에 한숨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 자동차의 기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다닐지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레스왕의 공격에 열방과 민족은 두려움에 빠져 헛된 우상을 의지합니다.

(5-7)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땀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열방과 민족들이 고레스왕과 그 힘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힘을 모아 한 일이 바로 화려하고 든든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바로 그들이 힘을 모아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큰 쓰나미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 앞에 모래성을 쌓는 사람과

도 같습니다. ‘이 모래성이 우리를 구원해 줄거야’라며 믿는 사람이 차라리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하여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라는 심판의 도구 앞에 속수무책이 됩니다. 한 때 주위 민족들을 향해 큰 소리쳤던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기껏 우상밖에 붙들게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붙든 자들은 기껏 바위에게 자신을 가려 달라고 애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8-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8-10)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아굽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시기를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고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미 그 답을 미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답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은 멀지언정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며 고통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버림 혹은 부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남유다를 멸망시키며 치욕을 주었던 바벨론은 고레스를 통해 치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도구였던 고레스는 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귀향을 허락하는 회복의 도구였습니다.

(14)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나라

‘버리지’라는 단어는 ‘톨라’라는 히브리어로 구더기나 벌레를 의미하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에 겪을 상황을 그려줍니다.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 벌레같이 하찮게 여겨질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시편 137편에 바벨론의 포로기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찬송을 불러보라고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의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바벨론의 악랄함에 치를 떨며 우리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에 갇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레취급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한 한 소년이 골목어귀에서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돈도 빼앗기고 코피가 터지게 맞고 바다에 깔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부모 밑에 거하기 싫어서 가출은 했지만 나가보니 고생이었고 그런 자신을 잊지 않고 찾고 어려움에서 건질 분은 실은 부모님 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라고 하시며 오직 포로기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포로귀환과 회복의 때(17-20)

17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 포로귀환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17-19)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땀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화초를 심겨진 화분에서 뽑아 다른 화분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식물하나도 그러하건데 한 민족이 뽑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1장에 고레스왕이 포로귀환을 명할 때의 기록을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사면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금



과 은과 물품과 짐승을 주었고 고레스왕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느부갓네살왕이 빼앗아왔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까지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정복자가 포로백성을 돌려보내는 것도 역사상 흔치않은 일일진대 이렇게 선대하는 것은 더 흔치 않은 일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고레스를 감동시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회복의 길을 만드신 이, 햇빛은 산에 길을 내신 이,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신 이,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신 이,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 이, 광야에 온갖 나무가 가득하게 하신 이, 이 모든 회복의 구원을 이루신 이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생활을 다하고 고생 끝에 회복을 경험하며 온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 쳐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

하지 못하고 꼭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맛보고서야 울며불며 주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끝끝내 그 품안에서 지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가 됩니다. 어리석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 우상의 헛됨을 증거(21-29)

21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헛됨을 증거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24)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리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상들을 도발하십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첫째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진술해 보라는 것이고 둘째는 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임에도 인간들이 손을 모아 만든 우상들은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이 도발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향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멋지고 잘 생긴 마네킹을 보며 사랑에 빠져서 당신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찾아가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그곳에 머물 때 그것을 본 남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보, 그 마네킹이 당신을 사랑하겠소? 당신을 위해 꽃 한 송이라도 줄 수 있겠소? 당신을 위해 밥 한 끼라도 시줄 수 있겠소?’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예화 같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하셨을 것입니다.

(25-29)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연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한 우상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를 통해 바벨론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때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이요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1장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과 세상의 소식들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론 길게 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버림이나 부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서 고레스의 호의가운데 불러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파도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를 근심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때론 징계를 당할 때에 그 고통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통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내 삶과 세상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목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2. 하나님께서는 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3.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중심에 두는 우상은 없는지 살펴보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묵상하여 봅시다.
4. 과거 내 삶과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 혹은 고통으로 낙심했었는데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전회위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기억하며 회복의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 정의의 빛

이사야 42:1-25

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0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  
 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험덱일 것이라 15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  
 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16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  
 니하리니 17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18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  
 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20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1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22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  
 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23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  
 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5 그  
 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  
 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 1장-39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즉 웃시야 왕부터 유다 말기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풍전등화(風前燈火)와도 같은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경건한 왕들 중 대표적인 인물인 히스기야의 믿음과 배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조차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사후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 열방 중에 흩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초토화된 사실은 이스라엘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의 장막을 여는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40장에서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 41장부터는 바벨론의 멸망과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1-4)

(1a)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히브리어 원문상 본문은 “자,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라는 이 감탄사에 주님의 자부심과 기쁨이 그대로 농축되어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내세우 시기에 이처럼 기쁨이 넘치실까요? 이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종”을 의미하는 “에베드”입니다. 종 또는 노예는 결코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보라!”라는 감탄사를 붙여서까지 종을 치켜세우시는 이유는 그 종은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하찮은 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종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주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원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정치가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해주신 삶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주신 삶만이 진정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

터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은 불행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b)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짐승과도 같은 존재,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정의를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거짓을 거짓이라 하고,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법정에서 거짓을 진실이라 하고, 진실을 거짓이라 하면 그는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것은 그가 재직 시절 "정의를 왜곡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의혹(疑惑)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우상은 거짓이요, 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베푸는 것은 인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1절의 “나의 종”은 41장에서 언급한 고레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본문의 “나의 종”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나의 종”을 고레스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종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 왕의 역할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본문에서 의미하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나의 종”은 장치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실체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본문의 “주의 종”으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자,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과의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 취급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설교로 해석하자면 그들은 율법보다도 율법을 재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진리의 열쇠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행보를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인 42:1-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했습니다.

(마 12:17-21)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4장에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읽으신 후 이 글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조차 중국에는 예수님을 본문의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민족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과 종교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열쇠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붙드신 주의 종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한 분이 며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 정의를 구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며 우리를 의롭 다 칭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 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 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택한 주의 종이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택함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자명해집니다.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 가 득세하고 권모술수가 난무한 이 시대에 정의롭게 산다는 것 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목소 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주 장만 내세울 뿐 전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격양된 세속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같이 진노하기보다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세상에 정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 다. 계속해서 3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이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사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높아져 가고 있고, 골목 상권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무엇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기에 애써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상황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에만 시선을 집착하는 인생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의 삶과 같습니다.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 정의의 빛 (5-9)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이 붙잡아야 할 빛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주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환히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겸손하게 실천하며 사는 삶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 구원의 약속 (10-17)

정의를 베풀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함께 한목소리로 힘껏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영적으로 암울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주의 종에게는 절대로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어리석은 백성 (18-2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귀가 있으되 진리를 외면하여 듣지 않는 자, 멀쩡한 두 눈을 가졌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제발 뜨고 네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본문의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내밉니다. 죄의 발원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에덴동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혹여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삶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진리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성령님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진리의 열쇠를 세속적인 문을 여는데 사용하는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라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구현해가는 우리를 세상을 향해 “자, 보라!” 고 하시며 자랑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종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좇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정의를 구현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의 풍량이 몰아칠지라도 겁먹거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할 때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빈곤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나날들로 가득 채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3. 본문에서 정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4. 정의를 베푸는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5. 상황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하나님의 증인

이사야 43:1-28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9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6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2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

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  
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7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8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  
라엘이 비방 거리가 되게 하리라

### 구원의 약속(1-7)

이사야를 3등분했을 때, 셋째 부분이 40-66장인데, 그 중에서  
첫 부분이 40-48장입니다. 이 아홉 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  
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16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망  
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  
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43-45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하나  
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성경은 ‘야곱아 너를’부터 시작하지만, 히브리어성경  
(영어성경들도 역시)은 ‘그러나 이제(but now)’로 시작합니다.  
즉 앞에 나온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42:18-25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  
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려고 하지 않는

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답답하여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는 뒤돌아서서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 호칭을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야곱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 ‘빼앗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 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또 허물이 많아도, 다시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



다. '구속'은 어떤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 노예였던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 본래 가졌던 땅을 되찾아 주고, 후손을 낳게 하여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윗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속'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속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룻밤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자신을 불러 주셔서, 함께 일하자는 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하면서 자신을 불러주어도 그것의 유효기간은 최대한 5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유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건넌 홍해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건넌 요단강을 떠올리게 하고, ‘불’은 광야를 지날 때에, 한낮에 내리쬐는 작열하는 태양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물과 불은 문자적일 수도 있고, 극한의 환란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산전수전(山戰水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환란의 강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게 해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4)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물과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지도, 태우지도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엄청나게 큰 애굽과 교환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길거리 벽에서 ‘반려견’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보곤 합

니다. 어떤 진단지는 찾게 해주면 보상금을 주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보상금이 반려견을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는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몇 년 함께 지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격보다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술과 같은 치료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 각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름은 물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데, 그 방법을 ‘복수’를 쓰지 않고 한 사람에게 말하듯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출발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 개인들이 모여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8-13)

8-13절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8-10)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  
아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런데 증인으로 나온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합  
니다. 만약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했  
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  
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각자  
가 우리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지금  
의 모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노력함에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  
해야 합니다.

(11-12)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11절 앞부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  
면, ‘바로 나, 바로 내가 여호와이다’입니다. ‘나(여호와 하나님)’  
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절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이시고, 나는 언제나 피  
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  
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 바빌론에서 시온으로(14-21)

14-21절은 바빌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새 일에 대해 증  
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빌론으로 군대를 보내어서 갈  
대아(바빌로니아)를 침으로, 바빌론 사람들이 흩어져 통곡을 하  
게 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페르시아가  
강성해지고 바빌로니아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

이라고 하십니다.

(18-20)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영화가 흥행을 하고나면, 2편, 3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후편 영화를 광고하면서 이렇게 카피 문구를 넣곤 합니다.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잇을 수 없는, 잇힐 수 없는 최고, 최대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잇으라고 합니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는 바닷물을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다 강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존심(自尊心)이 아주 강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찬양이 입의 찬양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22-28)

22-28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음에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시적인 징계를 선언하는 내용을 증거합니다.

(25-26)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었어도, 하나님 당신은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억에 떠올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서로 그것에 대해 토론해서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르게,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마치,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과 율법교사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자격도 없고, 선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총명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습니다. 주님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침몰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도 듣지 못하는 백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외식적으로 사는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늘 하루만큼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목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여 불러 주신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또한 당신을 바르게 세우고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통로가 되어 주신 분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2.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광야에 길이 나는 것과 같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3.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사야 44:1-28

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5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8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9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어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11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

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2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13 목  
 공은 줄을 늘어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14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  
 라게도 하느니라 15 이 나무는 사람이 땀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  
 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6 그 중  
 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8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  
 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20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  
 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  
 지 아니하리라 22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 여

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이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  
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  
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찢으며 나  
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25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  
며 점 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  
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  
키리라 하며 27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  
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160년 후에 있을,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고 그 백  
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1-8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는 내용이고,  
9-20절까지는 ‘하나님 이외의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는 내용이  
고, 21-28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자이시  
다’ 내용입니다.

###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1-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야곱’이라 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믿음의 선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야곱’이라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선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스스로 이야기 하듯,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것이 야곱의 이름 의미입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누군가의 인생에 ‘발목 잡는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평생 도움 안 되는 인간, 아니 웬수 같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의 대명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한 이유는 내가 바로 야곱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완벽한 믿음의 선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 하셨다면 나오는 거리가 먼, 어찌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인간,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간,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2)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을 나의 종이라, 택한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목해

보았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라자 여수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수룬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발목 잡는 인생'을 사는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룬, 의로운 자라 불러 주십니다.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5)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사뱃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형편없는 인생, 야곱 같은 인생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해야 될 말씀 같은데 그 반대로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보니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시편23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만, 여전히 내 삶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실은 내 삶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족함’은 물질적인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갑부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안계시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



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런가, 6절을 보시겠습니다.

(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함 없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을 향해 가다 잠깐 거쳐가는 중간 지점에 불과하기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과 나라가 있을지라도 그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바빌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유함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유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바빌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 이외의 우상은 무익하다(9-20)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신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9)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우상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막아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 줄 수 있으려면, 나보다 가진 것도 많아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만든 존재가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주며 인간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 우스꽝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7)이 나무는 사람이 땀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당시 우상을 만드는 대부분의 재료는 목재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그 중의 일부는 땀감으로 씹습니다.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목재로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하고 있으나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떡을 구워먹던 땀감이 될 수도 있었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재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던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땀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한 것입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그 눈과 마음을 가리고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이다(21-28)

이제 21-2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1-22)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와 ‘돌아오라’입니다. 기억할 것은 너는 내 종이라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인, 즉 우상을 섬겨서는 안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자유인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자유인이 되었으니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떨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며 복을 달라 구원하라,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죄로 인해 눈과 마음이 닫히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구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닫히고 어두워졌던 눈과 마음이 이제는 열리고 밝아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빌론의 공격으로 초토화 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한동안 폐허 상태에 있겠으나 다시 도시들이 재건되고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하십시오. 44장이 마무리 됩니다.

(26-28)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내 목자’라 그리고 45장 1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여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 2층 52번 방은 고대 이란 전시관입니다. 전시실 6호 진열장에는 유독 관람객들이 많이 몰립니다. 가로 23cm, 세로 10cm 크기의 원통 모양의 진흙 토기 때문입니다. ‘키루스의 서판’으로 소개되는 이 토기는 일면 ‘고레스의 실린더’로 불립니다. 이 토기에는 BC539년 바빌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키루스 2세)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쉐기문자로 기록된 토기에는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으며, 토기 끝부분에는 포로들의 사회적 신분과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전통에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고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빌론에 거주하는 자들에 관해.. 나는 버려져 있는 그들의 땅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다... 나는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예전에 그들과 함께 존재했을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그것들을 위해 성소도 짓게 했다’ 이 토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왕과 그의 칙령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토기 발견 후에는 유대인들의 포로귀환을 담은 고레스 칙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놀랍습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며, 한 민족을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날에는 심판자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 오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진리의 문을 열어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발목 잡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헛된 우상에 빠져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므로 내 목자라 불리며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이 시대의 고레스로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많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받은 백성의 대명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나는 왜 이리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4.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여년 전,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5.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사야 45:1-25

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못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 하늘이여 위로부터 고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싣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옮돈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

계는 무엇을 받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러느냐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3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8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9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20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21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4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25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45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에 관한 예언은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죄사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등의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45장에서는 이스라엘 구원의 약속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에 의해 풀려날 것을 예언합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제국을 세운 초대 왕입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_바사 왕을 세우다

(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를 이스라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막강한 힘을 주시어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와 세계정세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의 인생사 역시 포함됩니다. 인생의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2)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고 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의 열국에 대한 승리와 정복은 고레스의 능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정복할 나라와 성의 늦문과 쇠빛장을 꺾으시며, 그 결과 획득할 보화와 재물 역시 고

레스의 손에 안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권력자들 역시 그들의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이 이룬 일을 보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포함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본국 귀환의 길을 열어놓고자 하신 것입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의 이해를 돕고자 표준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4)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아굽,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2인칭 ‘너’는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다가가셔서 영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도 모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9)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매 구절마다 ‘나는 여호와라’, 8절에 ‘나 여호와가’라며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유일신임과(5절, 6절) 눈에 보이는 물질을 창조하신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사회 현상과 화복(禍福)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임과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창조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신적 존재를 세상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 창조주, 유일신\_이스라엘의 무지

(9-13)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이스라엘의 무모한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야지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나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어리석은 자식이 마치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았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손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13절에 “그를 일으킨지라”는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고레스를 도구삼아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본토에서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이 본토로 1차 귀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만 귀환한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 건축도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후 이 성읍은 훼파되고 성문이 불탔지만 나중에 느헤미야 때에 성이 보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애타게 일하고 계십니다.

(14-1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스는 에디오피아, 스바는 남 아라비아입니다. 애굽과 더불어 구스와 스바는 이스라엘 남쪽의 부와 힘의 상징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굴복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국가나 개인을 높여주실 때에는 그 국가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 국가와 개인에게 영광을 얻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6-19)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도다 18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9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굽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끄러움과 굴  
욕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그리고 혼돈 중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  
신 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의 창조 사  
역과 사랑을 모르거나 망각한 채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주위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창조주를 잊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  
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부끄러움과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20-21)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외 나라들에서 피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낱 조각에 불과한 우상에게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외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립니다.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무엇에 빠져 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2-25)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23절부터 25절까지는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당시 이

방 나라들에 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세상의 모든 나라에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11절입니다.

(10-11)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을 말씀하실 때 기준으로, 최소 100년이 지난 이후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본토로 귀환시키시고, 또한 열방들에게 구원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바벨론 귀환 약 540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흑암과 혼동 중에서 살아가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십시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음과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을 모르고 한낱 조각에 불과한 우상에게 절했던 과거 이스라엘처럼 독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  
님을 잊고 다른 것에 빠져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도  
구 삼아 이스라엘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사도 바울에게 각 시대에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3.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을 인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4. 이사야 45장 23-24절과 빌립보서 2장 10절-11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 및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 봅시다.
5.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벨은 엎드러졌고

이사야 46:1-13

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3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니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5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6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8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  
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2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13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  
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 우상과 하나님 그리고 보호와 구원(1-7)

66장으로 된 이사야를 3등분 하면, 1-35장, 36-39장, 40-66  
장입니다. 셋째 부분(40-66장)을 또 3등분을 하면 첫째 부분이  
40-48장입니다. 이 아홉 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로부터 약 100-16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를 예언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분하여 보면 40-42장은 바빌론 포로  
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43-45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리고 46-48장은 바빌론의 멸망  
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1절이 이  
렇게 시작됩니다.

(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모두 바빌론의 신입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패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전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상징으로,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을 섬기는 신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포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엎드려졌고, 내가 구부러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벨’은 ‘주(主)’ 또는 ‘주인(主人)’을 뜻하고, 하늘의 신, 최고의 신으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창씨개명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는데, 그 때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고,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은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벨은 후에는 ‘마르дук’으로 불렸습니다.

‘느보’는 ‘말하는 자’, ‘대변자’라는 의미로,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 처럼 자기 이름에 ‘느보’를 더하여 자신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준 적이 있었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어서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부자관계인데, 벨(마르둑)과 느보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신교 국가인 바빌로니아에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최고의 신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엎드러지다’는 ‘머리를 숙이다’와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리고 ‘구부러지다’는 ‘몸을 숙이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과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최상으로 여김을 받았던 신들을 나타내는 신상들이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려 가고 있고, 그것들이 무거워서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레스에 의해서 바빌론들의 신전들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신으로 여김을 받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짐승에 실려 가는 신세가 된 것을 보니,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그저 우상에 불과했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사람들에게 매로 다스림을 받는 짐승과 가축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구부러지고, 엎드러진 벨과 느보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1절에는 각각 단수로 말했다면, 이제는 복수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벨과 느보뿐만 아니라 바빌론의 모든 신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러짐을 의미합니다. 그 신들이 사람들을 건져 올려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들을 신고 가는 동물에게서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잡혀(잡히다)’는 ‘패전하여 포로가 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를 표준새번역성경은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 간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무기력함을 묘사하는 것은, 혹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무력하거나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4) 아곱의 집이며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1-2절에서는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은 자기 백성들을 견져 올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3-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짐을 대신 져주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NASB영어성경은 ‘너는 나로부터 태어난 자(You who have been borne by Me from birth)’라고 번역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합니다.

또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업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출애굽을 염두에 둠)할 때부터, 그들을 업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업고 다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업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업다’는 ‘품에 안다’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혹 나중에 바빌론에서의 포로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안고 있음을, 여전히 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그러한 보호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출애굽이 출생에 해당한다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옴은 노년(백발)의 때에 해당합니다.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히브리어성경에는 ‘내가(I myself)’가 강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짧은 절에 ‘내가(하나님께서)’가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품을 것이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 미래’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의지를 피력해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5)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견줄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비교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수사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가볍게 여겨서 다 털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뒷동산으로 소풍을 가면 꼭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아버위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놀이나 부모님이 소풍 갈 때 주신 돈을 탈탈 털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준다는 것은 은세공업자를 고용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우상은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을 뿐이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뿐임에도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상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8-13)

8-13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 올려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8-10) 너희 패역한 자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3:18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옛날 일 그 자체를 크게 여기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을 가장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옛적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실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11-13) 내가 동쪽에서 새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나운 날짐승’은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를 뜻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왕의 군대 휘장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도 고레스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빌론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건져 올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있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서도 그것이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인줄도 모르고, 그저 그러한 것을 손에 쥐면, 내 삶이 더 빛날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만 태어날 때부터 노년과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의 고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업어주셨고, 세속적인 욕망의 바다를 헤엄쳐 다닐 때에도 우리를 안고 품어주셨습니다. 감히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비겨 견줄만한 것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음을 중심으로 수용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대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총의 주님을 덧입어 오늘도 함께 지어저 가며, 진리와 생명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벨과 느보는 바빌론의 최고의 신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업고 품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지난 삶을 가만히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품어주셨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려보십시오.
3. 하나님께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십시오.
4. 오늘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사야 47:1-15

1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  
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  
임이라 2 땃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  
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4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5 딸 갈대아여 잠잠  
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  
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6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하여 내 기업을 욱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  
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  
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8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  
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  
어다 9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  
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  
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12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13 네가 많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14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15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멸망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 이유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절인 15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 망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바벨론과 그 이유 (1-11)

(1)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뭇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본문에서 바벨론은 ‘처녀’, ‘딸’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패망으로 인해 몰락하게 될 바벨론의 처절한 모습을 강조하게 위해 의인화된 표현법입니다. 열방 위에 공주처럼 군림하던 바벨론은 이제 그 보좌에서 내려와 땅에 앉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더 이상 곱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3) 멧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지위가 격하된 바벨론의 모습이 보다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열강을 호령하던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멧돌을 돌리며 곡식을 뺏는 피지배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 도주해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의 결과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보복’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바탕을 둔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바벨론은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관련하여 본문에는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수를 막을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

님의 복수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복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무섭습니다. 막아 볼 수도 없고 피해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인간은 결국 수치를 겪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벨론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하였겠습니까?

(6)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어를 심히 무겁게 매우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수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역대하 36장 17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주시며 일부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를 넘는 가혹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된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당신 권한의 일부를 맡겨주십니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그 권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본능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공훈의 열쇠로 그 권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바벨론처럼 본분을 뛰어넘는 악독한 행동을 타인에게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보복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는 베섹이란 부족국가의 왕 아도니베섹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항복한 70명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무자비한 인물입니다. 먹을 것을 땅에 뿌려 놓고, 왕들이 개처럼 땅을 기어 다니면서 주어 먹도록 수치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훈을 베풀기는 커녕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사악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던 아도니 베섹은 결국 유다지파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게 됩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복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의 권한을 사람을 공훈하게 생각하는 공훈의 열쇠가 아닌 무자비한 자기 본능의 열쇠로 열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훈히 여겨주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니다. 그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에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열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상자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8)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보복을 초래하게 했던 원인은 바로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는 바벨론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위상을 자기 스스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생명에 대한 권한’까지 자기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

만함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드는 바벨론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보복 상자를 열리게 하는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교만의 열쇠로 하나님의 영역을 열려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으니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부분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한 권한은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교만함의 열쇠로 사무엘의 영역을 열고 들어 가 자신의 주관하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권한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권한을 주신 주권자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는 교만함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복하심 속에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 오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겸비함의 열쇠가 아니라 교만의 열쇠로 하나님의 영역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겸비함의 열쇠를 쥐고 하나님의 섭리의 상자를 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존중받고 세움 받는 은총의 상자를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가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  
식도 없으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 자랑의 열  
쇠로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  
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이 진리의 근본을 무시한 채 자신이 지  
닌 제한적인 지혜와 지식이 마치 세상의 전부 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과시의 열쇠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세상  
질서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런 바벨론의 그릇된 자궁  
심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  
철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의 열쇠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  
로소 진리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참 자유함을 만끽하는 은혜  
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 17:3). 하나님  
을 아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예수 그

리스도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12-15)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 어떤 인간적인 계략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토록 의지하던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 곧 ‘점성술자’ 로 대변 되는 ‘우상 숭배자’ 의 그 어떤 사술도 하나님의 보복으로부터 바벨론을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복 앞에 검불처럼 타고 불길같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15)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이 것처럼 위하던 미술사들 또한 하나님의 보복 앞에 속수무책이며 함께 장사하던 바벨론의 속국들 또한 흩어지게

되는 등 그 누구도 바벨론을 하나님의 보복으로 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구원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쇠로 구원의 문을 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악에 대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 몸으로 십자가에서 막아주신 주님의 은혜의 열쇠로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열쇠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로 오늘 이라는 삶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무자비함의 열쇠가 아닌 긍휼의 열쇠로, 교만의 열쇠가 아니라 겸비함의 열쇠로, 자기 자랑의 열쇠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열쇠로 오늘 이라는 문을 여심으로 주님 주시는 참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 오늘의 기도

타인을 짓밟는 것 또한 마치 권한의 일부인 양 착각하는 세상,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자신이 지닌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세상 속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무자비함의 열쇠가 아니라 긍휼의 열쇠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의 열쇠가 아니라 겸비함의 열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랑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열쇠로 오늘과 인생이라는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겸비함,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공홀없는 무자비함 때문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공홀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복을 직면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내가 지닌 교만함은 무엇인지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3. 하나님의 보복을 초래한 바벨론의 모습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였습니다. 현재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과시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4. 주님께서 주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열쇠들로 이 하루와 인생의 문을 열며 살아가야할지 오늘 본문을  
떠 올리며 정리해 보십시오.

##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사야 48:1-22

1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3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4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 5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6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7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11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욱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  
 지 아니하리라 12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13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  
 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  
 빠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하였느냐 15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  
 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험통하리라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  
 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  
 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  
 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18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  
 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  
 으리라 하셨느니라 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  
 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  
 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  
 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  
 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어나게 하  
 셧느니라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 새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1-13)

'이스라엘의 고집 VS 하나님의 고집', 오늘 본문의 타이틀입니다. 참 지긋지긋하게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고는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큰 소리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며, 멋들어진 종교적 고백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말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직면하는 손해 보는 삶은 원치 않습니다. 더 악착같으면 악착같았지, 그야말로 고집불통 일뿐입니다. 1-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4, 공동번역) 이 말을 들어라. 아굽의 가문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들아,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아, 아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아, 마음은 거짓으로 차 있고 생활은 비뺏어졌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부르는 자들아, 그러면서도 스스로 거룩한 도시의 시민임을 자처하면서, 그 이름 만군의 아휘이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의지한다는구나. 지나간 일들을 내가 그보다 앞질러 일러주었고, 이 입으로 똑똑히 들려주지 않았더냐? 홀연히 나는 그것들을 이루었다. 너희가 고집불통 무쇠 같은 목덜미에 청동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고집불통, 무쇠 같은 완고함과 믿음 없음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청동 같은 얼굴을 하며 딱딱하게 굳어 찌꺼기 갈라진 메마른 심령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쇠고집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이 인생들을 '사랑하다 사랑하다' 죽기까지 하셨으니, 눈물겨운 하나님의 집념이요 일념입니다. 이스라엘(인생)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중, 어느 고집이 더 셉니까? 하나님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이 인생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그 결정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8, 공동번역)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은 번복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끝까지'입니다.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내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환도 뼈가 부러지기 전에 행복하게 유익합니다(창32:25). "하나님,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11-13, 새번역)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지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우리가 기꺼이 그 분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가슴이 답답할 때, 실패와 패배에 속이 쓰릴 때, 철없음으로 실수가 반복될 때, '어찌하면 되나요?' 탄식과 한숨이 신음처럼 터져 나올 때, 바로 그 때에도 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방황, 그리고 우리의 실망과 한탄이 결코 끝이 아닌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또 그 모든 일의 결말을 지으십니다. 그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롬8:28).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이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위하여(11)', 하나님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매듭지으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았고, 하늘을 쥐락펴락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고집불통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집으로 이 쇠고집의 인생, 이 무지한 인생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얘야, 내가 한다. 내가 바로 그다. 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뭐가 그리도 복잡하나? 나를 믿어라! 눈물을 닦고 힘을 내라. 나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놓지 않는단다."

#### (14-22)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고집과 아집으로 스스로를 묶고 억압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벗어날 능력도, 자격도, 희망도, 스스로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치 탕자가 돼지 쥐엄열매를 조금 더 원하는 가엾은 탐욕뿐입니다(눅15:16). 그 절망상태의 포로 인생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살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20-21, 새번역)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어나게 하셨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소망의 외침을 미약하고 가엾은 포로 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만세! 해방! 나오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희망찬 명령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 분의 소망의 외침에 순종하여 걸어 나오면 됩니다. 이전 출애굽시절 이스라엘 백성

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사막 광야에서 말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좇아 뒤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의 능력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뒤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미련하고 고집 센 인생들은 그 주님의 소망의 외침을 외면합니다. 십자가의 피맺힌 주님의 구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포로로 묶여 고집과 억지를 부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은 자기를 고집할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지막지한 죄의 본성입니다.

####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평강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나 자신을 고집하는 만큼 평강을 잃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평강을 잃고 맙니다.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 앞에, 그 소망의 초청 앞에,

그 포기치 않으시는 이끄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그 '견인하심'에 순종하는 것, 매 순간 그렇게 순응하며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씨름해야 하는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 주님의 고집과 열심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교우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경외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내 안에 평강 없음'도 아닙니다. 내 고집으로 하나님 잃은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고집불통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시오. 못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고, 오늘의 주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며, 기꺼이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결음을 걸어가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본문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집불통 무쇠 같은 목덜미에 청동 같은 얼굴(공동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2)' 말씀이 내게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3. 오늘 내가 떠나 나와야 할 '바벨론(20)'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 이방의 빛

이사야 48:1-26

1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 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2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 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यो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 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 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 이스 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8 여호와께

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9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혈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12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네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21 그 때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2 주 여호와와 이  
 같이 이르노라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  
 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밭의 티끌을 핥을 것  
 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4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  
 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25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용  
 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  
 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6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 이방의 빛 이스라엘(1-7)

66장으로 된 이사야는 1-35장, 36-39장, 40-66장으로 3등분  
 이 되는데, 셋째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로부터 약  
 100-16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의 셋째 부분이 40-66장으로, 모두 27장인데, 이것을 3등분하  
 면, 꼭 9장씩 나누어집니다. 40-48장, 49-57장, 58-66장입니  
 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둘째 부분(49-57장)을 시작하는 장  
 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이 세계에 빛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

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종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것이 4번이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인데, 오늘 본문이 2번째 것입니다.

(1)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함)은 태중에 있을 때, 또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섬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건져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2-3)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यो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자기 백성을, 그리고 온 세상을 어떻게 건져 올리시는지를 3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날카로운 입의 칼’입

니다. 이것은 큰 영향력이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의 공통적인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거기까지 충분히 찢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찢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손 그늘에 숨겨주심’입니다. 성경의 ‘손’과 ‘팔’은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팔이 인도하셨다’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팔(능력)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 손은 우리를 충분히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 손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잡아 주셨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셋째는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양궁경기에서 선수가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 활을 쏘는데, 그 거리가 무려 70m나 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과녁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까지 날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9점, 10점의 과녁에 쏘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리가 70m가 아니라 700m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거기까지 활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70m, 700m가 아니라 70km, 700km보다도 멍니다. 게다가 길이 끝은 것도 아니고 산도 넘고, 물도 건너야 합니다. 또한 한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후 같이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또한, 맑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화살은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화살을 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표면적으로는 구원자의 탄식처럼 들립니다. “나는 헛수고만 했고, 공연히 힘만 뺏다”고 후회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참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여러 표적 행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은 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거기까지가 자신의 역할이고, 그 역할의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에 죽으신 주님을 사흘째 되는 날에 살려내시고, 지극히 높이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로 하여금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성취하게 됨으로 승리하게 되어 돌아올 것을 5-7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비록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 예루살렘의 회복 약속(8-26)

8-26절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할 사역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번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비록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그들의 땅,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또 오랫동안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가 정한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날을 잘 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날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이 더 좋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신앙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날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빌론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등

등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해 주신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그 일을 행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으로 표현을 하면, 그들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고, 더 이상 수금을 탈 일이 없어서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15)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빌론 강변에서 강제노역하며, 아무리 눈물로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백성을 먼 이국땅까지 포로로 보내실 리가 없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방치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젖 먹이 자식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혹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시대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인간의 악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또한 자식에게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나는 영접하시리이다(시27:10)” 성경에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버림당함과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편이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히브리어성경으로 16절은 ‘보라(헨, Behold, See)’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 ‘보라’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며, 잊으셨다고 하며 체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소를 도축하면, 그 소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도장을 찍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노예들은 종종 자신의 손에 주인이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종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주인이



신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의 표현이 또렷하지 않지만, 서양언어들은 단수. 복수의 표현이 아주 또렷합니다. 히브리어성경이나 영어성경 등에 보면 그 ‘손바닥’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혹시 한쪽 손에 새긴 것이 사라질지라도 다른 손에서 이름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짙은 패배의식으로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 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26)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아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용맹한 적장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수사적문문

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만주 땅이 옛날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 것이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잘 사용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선전포고로 여기고 선제공격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고, 최대 강대국입니다. 경제력과 국방력 등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억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함부로 데려오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켜서라도, 서로 살육(殺戮)으로 인해 피냄새에 취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두려워하여 섬기고, 따르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쫓먹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 자녀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패배의식

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당신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심의 극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분량만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만 인도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고, 인생의 순간마다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혹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하지 말아야 할 세속적 가치관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으로 섬겨,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동안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새겨지게 하심으로,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손바닥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생활 중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나 잊어버린 바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인생길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낀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3. 전쟁에서 빼앗긴 것이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되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유다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4.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 50:1-11

1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2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나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3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느니라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툰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들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 징계의 의도(1)

오늘 본문에도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혼 증서’를 언급합니다.

(1, 새번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 준 이혼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 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결혼하고 난 후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절에 언급된 ‘이혼 증서’는 2가지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 증서라는 말은 유다 백성

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유대 백성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 준 이혼증서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 증서를 써 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이혼 증서는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즉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은 이혼 증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서 죄를 끊으려는 하나님의 시도이지 그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이혼 증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해 징계는 하셨을지라도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정리해 주셔야 마땅할 때라고 여긴 그 시점에 오히려 침묵만 하고 계실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 삶에 무관하거나 무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일하심에서 결코 쉬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적으로 보는 상황의 해결을 넘어 더 넓은 완성된 그림을 향해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 하나님은 어떤 분?(2-3)

하나님은 단 한시도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와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보기 좋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능력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당신이 어떠한 분임을 설명합니다.

(2-3)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으리라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충분히 구해 내고, 고난을 충분히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의

벽 앞에서도 그 벽을 걷어 낼 만큼 충분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런 주님의 권능은 출애굽 사건 때 충분히 보여졌습니다. 홍해라는 넘어설 수 없는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출애굽을 일으킨 열 가지 재앙은 이미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권능 자가 되신다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 오셨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 인생의 반응과 그럴 수 있는 이유(4-9)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4-6, 새번역)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 내용은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듣고 가르치셨으며, 고난과 모욕 앞에서도 철저히 순종의 길을 물러섬 없이

걸으셨습니다, 또한 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실제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걸어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일. 고난과 모욕 앞에서도 철저히 순종의 길을 물리섬 없이 걷는 일. 또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일. 이 모두 능력의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7-9, 새번역)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웃처럼 헤어지고, 쯤에게 먹힐 것이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견뎌낼 힘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니 우리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우리는 당당히 그

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 또 한번의 권면(10-1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10-11)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돌려 락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주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너희의 능력으로 그 길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여정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만 따라 걸으면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쉬워 보이지만은 않지만,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길의 폭에 상관없이 우리를 업고

자유롭게 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진정 두려워해야 할 주님만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당당하고도 행복하게 걸어가는 하루이길 소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주님! 어느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하지도 무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하루하루의 길을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주님 의지하여 겸손히 또 당당히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 비록 세상의 영화는 없어도 주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늘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1절에 언급된 이혼 증서는 어떤 의미를 알려줍니까?
2.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으려 합니까?

## 내게 들을지어다

이사야 51:1-23

1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 너희의 조  
 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  
 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  
 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양망하여 내 팔에 의  
 지하리라 6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  
 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  
 니하리라 7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  
 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  
 라 8 옷 같이 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썯벌레가 그들을 먹  
 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9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11 여호와께 구  
 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  
 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12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  
 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  
 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  
 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  
 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5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17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  
 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18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19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닳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  
 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20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  
 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  
 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21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22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  
 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  
 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

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엮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의를 좇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망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 내게 들을지어다(1-8)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을 향하여 공의를 굳건히 할 것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식이 없어 소망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고난 당하며 삶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란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번성케 되는 길은 1절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1)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단지 공기의 진동에 의한 소리의 자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으로 연결된 들음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과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그들을 건져 내사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일을 생각하라고 요청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과거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권고하사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다시금 각성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함과 즐거위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위로하여’라는 단어는 ‘숨을 깊이 들어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위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과 광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은총으로까지 이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선민이 누리게 될 것을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일하는 소리’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랫소리를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억누를 수 없는 흥겨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4)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이방 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든 그들은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된 근본 원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좇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되면 과거의 오염된 전철을 되밟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은 이스라엘을 넘어 만민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되었습니다.

(8b)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란 의미와 더불어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부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살아내는지를 통해 증명됩니다.

##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9-16)

9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벨론 압제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달라는 선지자의 간곡한 부르짖음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구원을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12)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이 포로 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울지라도 결코,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무기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실 수 있는 분,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15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된 상태처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억압되어 있다면 그 억압의 실체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백성 된 신분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17-23)

17절에서 23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근거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하여 각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바벨론에 의해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깨어날 것과 일어설 것을 촉구합니다. ‘깰지어다’는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사불성의 만취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자리에 서라는 요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셨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깨어나 회복할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사불성의 만취상태인 이스라엘을 일어서게 하실 분, 절망에 빠져 소망의 빛이 전혀 없던 백성에게 허락된 진노의 잔을 거두실 분, 그들을 구원하고 위로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오늘을 살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타인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어둠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듯 사막과 광야를 헤매이는 내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2. 그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누렸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3. 현재 내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억압입니까? 내 속의 어둠입니까?
4. 나를 억압하는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자리에 서라는 주님의 요청에 어떤 응답을 드리시겠습니까?

##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52:1-15

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 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

고 예루살렘을 구축하셨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1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2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대 대하여 놀랐거니와 15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 선지자의 각성 촉구 - 속량의 말씀(1-6)

이사야 52장의 앞부분은 51장에서 이어져온 말씀이고, 뒷부분은 53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와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잘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1:9-10)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하나님을 향해 주무시지 말고 깨시라고 2번이나 요청합니  
다. 라합과 용은 모두 애굽(이집트)을 상징합니다. 즉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일에도 빨리  
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51:17-52:12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3중으로 드러나는데, 핵  
심은 깨야 할 것은 내가(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말씀하  
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촉구가 51:17-22입니  
다.

(사 51:17)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애  
들아, 깨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  
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과

같았다면, 이제부터는 맑은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듯이, 지금까지 우상숭배의 잔을 마시고, 이방인 같은 삶에 취해서, 어디로 걷는지도 모르고 바빌론까지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맑은 정신으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축구가 오늘 본문 1-6입니다.

(1-2)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날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다시 시온(예루살렘)을 향해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다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운을 차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후반절에는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의 줄’은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목에 묶는 줄이나 죄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묶는 포승줄을 뜻합니다. 이전에 짐승처럼, 또 죄수처럼 바빌론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지만, 이제는 그 짓값을 충분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5)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상거래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판 전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팔린 물건이고,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산 새 주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팔린 이스라엘을 되찾아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팔 때에 돈을 받고 넘겼으면 돈을 주고 되찾아 와야 하는데,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징계

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값없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십시오. 깨십시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정말 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선지자의 각성 촉구 - 복음의 파수꾼(7-12)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촉구는 7-12절인데, 구원의 날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며, 부정한 삶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가 먼저 나오는데, ‘발’, ‘아름다운 발’을 강조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을 5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둘째는 평화를 공포하는 발, 셋째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 넷째는 구원을 공포하는 발, 다섯째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2:10)” 인류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며,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입니다.

(8) 네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보다

지금은 무전도 발달되어 있고, 전화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 고대에는 말을 타거나 걷고 뛰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은 멀리서 전령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먼저 그 소식을 왕궁에 알려서 왕이 그 전령이 가지고 오는 소식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수꾼들이 보는 것은 전령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 소식은 전령이 전하는 소식과는 비교될 수 없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뻐 외칠 것이라고 합니다.

(11-12)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기 백성들에게 “깨어라, 깨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떠날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치듯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개별적으로 온 것도 아니었고, 우왕좌왕하며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1차 귀환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에 돌아왔고, 2차 귀환에서는 에스라의 인도 하에 돌아왔습니다. 3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은 느헤미야였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여서, 모든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비자)를 내려 주었습니다. 심지어 군대장관과 마병까지 대동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칠칠하게 인도해주셨던 것입니다.

#### 수난 받는 종의 노래(13-15)

13-15절은 5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것이 4번이 나오는데, 42장, 49장, 50장, 53장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종의 노래가 53장인데, ‘고난 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본문의 13-15절은 그 종의 노래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13-15)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의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넘쳐흐르던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소리를 질러 무너뜨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론 포로에서 귀국하게 된 것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종의 노래는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160년 후에 있을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빌론 강변에서 강제노역을 할 때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까지 가야 했던 것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바빌론에서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더욱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시온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백성들에게 “너희가 깨어라, 너희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의 바빌론에서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의 바빌론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깟지어다, 깟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언제이었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언제이었습니까? 지금 당신이 정결해야하고, 떠나야할 부정함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고 느낀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죄의 바빌론에서 떠나,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거룩한 역설

이사야 53:1-12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  
 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  
 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  
 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  
 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  
 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  
 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  
 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  
 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  
 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  
 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  
 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 여호와께

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메시아(1-9)

앞선 52장에서 황폐한 이스라엘에 평화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듣는 이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들을 침묵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2:15)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현재 이스라엘은 힘없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바벨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혹독한 고통의 상황에서 깊은 숨조차 쉬지 못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메시아는 자연스럽게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던 우리를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만국의 왕들이 경배하고 무릎 꿇는 상황에서 우쭐거리며 메시아와 걷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지금의 고통을 반감시켜주는 쾌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아는 아주 불품없는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을까?”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져 포로 되어 끌려간 바벨론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율법을 맡은 자라는 교만함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동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에 젖어 살았으며, 영혼은 병들고 피폐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집



스럽게 불순종하던 율법을 재해석해보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결론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지금이 타락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애 타게 기다린 것입니다.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6)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회복은 쌓아온 잘못된 것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묵인하면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프랑스는 나치에 부역했던 이들에게 철저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200만 명의 부역자를 기소하였고, 99만 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6,700명이 사형, 26,000여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

은 사람들도 가혹한 여론의 못매를 받았습니다. 가혹하다는 의견 앞에서도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며 강행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인들은 프랑스가 다시 외세에 지배를 받을지라도 민족의 반역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날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메시아임을 이사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분명한 심판, 확실한 징계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하건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메시아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주님은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7-8절입니다.

(7-8)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 질고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10-12)

이사야의 네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 반복적이며 유한한 불완전 제사가 아니라 죄의 연속성을 끊어낼 희생의 제사, 거룩하며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스스로 범한 죄악에서 제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죄가 주는 잔혹하고 처참한 심판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잘 하면 구원이요 못하면 심판이라는 어설픈 이분법에 갇힌 우리를 위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강력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끌어안음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비난과 멸시보다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더 두려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남겨진 ‘씨’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남겨진 거룩한 씨는 죄악 된 세상을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무런 보상이 없는 희생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힘들고 고된 일들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다보면 어느덧 모든 힘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들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과 격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명감으로 했던 지난 날들을 후회합니다. 시대 어른들께 착하고 성품 좋은 며느리로 존재하고 싶지만, 어느덧 함부로 대해도 되는 가벼운 존재가 되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친절하고 자상한 태도로 사람을 대했지만, 큰 맘 먹고 베푼 선행에 보상은커녕 호구가 된 것 같은 모멸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의욕을 잃고 맙니다.

바로 그 때, 우리 주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뒤엎을 힘이 있으셨으나 오히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신 주님이셨기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꺾으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십자가를 집니다. 저항할 수 있음에도, 큰 소리 낼 수 있음에도, 거부할 수 있음에도, 평화를 원하시는 하

나님,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씨들이 영혼의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  
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바보라고 조롱당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살아갑니다. 많은 죄를 책임지며 치유하려  
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씨들에게 1절의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나타날 것입니다.

(엡 1:17-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여전히 까닭 없는 고난은 두렵습니다. 우리의 얇은 귀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며, 약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이 사람의 멸시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랑하셨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사 평화와 나음을 허락하심을 더 기뻐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씨로 살아갈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깊은 순종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는 메시아를 보내셨을까 묵상해봅시다.
2. 죄악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혹시 책임지지 않았던 죄악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면 회개하며 책임을 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해보기로 결단합시다.
3. 십자가의 의미를 이어갈 거룩한 씨로써 오늘 곤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어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외쳐 노래하라

이사야 54:1-17

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지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4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1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12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3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14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15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16 보라 숲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외쳐 노래하라(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각 문단의 말미에 거듭해서 기록된 문장입니다. 본문은 메시지의 출처, 즉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꼭 짚어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검지손가락을 펴서 이 부분을 가린다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비틀어 생각해보

면, 도리어 이 부분을 빼고 읽을 때, 보다 매끄럽게 절과 절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발신자를 글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그 출처를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할 나위 없이 발신자를 또렷이 밝히며,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a)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딱한 처지에 비유합니다. 이 여인의 미래는 불 보듯 뻔했고, 현재 역시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선지자는 외쳐 노래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기뻐 목청껏 소리쳐라’ 보다 역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봐도 무엇보다 따듯한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선지자 중 으뜸으로 꼽는 이는 외쳐 노래할 것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근거)를 말씀합니다.

(1b)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해 결국 홀로 된 여인으로 하

여금 기뻐 목청껏 소리치게 만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세상이 쫓는 부와 귀가 우선순위로 자리할 수 없습니다. 잉태와 출산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여인과 대비되는 남편 있는 자를 언급하며, 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한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지자는 문단의 말미에 이 말씀(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또렷이 기록합니다.

문서(공문)의 말미에 기록된 기록자의 신분은, 문서의 권위와 영향력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본 절은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는 처량한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소망을 복돋우면서, 장차 회복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2-10)

(2-3)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먼저는 장막터를 넓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어 그와 같이 명령하신 이유는 장차 민족이 번성함으로 경계가 넓어지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거주할 땅 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분명히 가리키셨습니다. 계속해서 회복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4)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서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서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큰 상처는 쉽사리 잊혀지지 않고, 민족 전체와 개인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로 인한 상처를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전과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5-6)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심을 선포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과거 익숙했던 호칭들  
을 나열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네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 이를 통해 혹시 잊고 있을지 모르는 과거  
부터 이어진 친밀한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  
서 처량한 신세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거듭 부르고 있음이 하나  
님의 말씀임을 기록합니다. 이제 그들이 처량하고 피폐하게 된,  
고난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8)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은 외면한 채 거듭해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시선을 잠시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떠난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삼시간에 열국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  
했습니다. 스스로 열방의 중심이라 생각했건만 실상은 변방으로  
서 나날이 황폐해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이 잠시였음을  
거듭 언급하며, 이와 달리 하나님의 자비(사랑)는 노아의 홍수  
의 언약을 그 예로 들어 번복됨이 없이 영원할 것임을 강조함

니다. 이어 회복될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 말씀이나라(11-17)

(11-13)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결코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폐허 그 자체이나, 하나님은 그 땅이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치장되어 빛나는 도시가 될 것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더 이상의 학대, 공포, 분쟁, 파괴, 진멸은 다시없을 것(14-15절)을 말씀하시며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릅니다.

(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나라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전쟁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송사하려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한글성경에는 앞서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하셨느니라’와 본 절의 ‘말씀이니라’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사용된 단어 자체가 달랐습니다. 앞서 반복 기록된 문장에 사용된 말씀에는 아마르(אמר)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말하다’는 뜻으로, NIV성경은 이를 일상용어인 say 로 번역합니다. 이와달리 본 절에는 네움(נא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말하다, 선언하다’는 뜻으로, NIV성경은 이를 공적용어인 declare 로 번역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만 앞서 반복해 기록한 아마르(אמר)가 아닌 네움(נאם)으로 용어의 사용을 달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야 54장 전체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적으로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하시겠으니,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외쳐 노래(찬양)하라’, ‘기뻐 목청껏 소리쳐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분명한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시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주어(주체)가 되고자 아등바등하지 말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남편되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니 우리 존재 자체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헤아려 봅니다. 거친 세상과 날카로운 사람들의 말로 인한 상처에 순간의 위로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영원한 말씀(약속)을 의지하며 거침없이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주어가 되려했던 지난 날의 연속이 아닌,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좁은 길 위에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체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도 못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분(관계)으로 존재하고 계신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3. 기뻐 목청껏 소리쳤던 순간이 언제였고, 어떠한 순간이었는지 헤아려 봅시다.
4.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해 봅시다.

##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사야 55:1-13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  
 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  
 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  
 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  
 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  
 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짝

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  
 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  
 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  
 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  
 리라

#### 구원의 은혜로의 초청(1-5)

66장으로 된 이사야는 1-35장, 36-39장, 40-66장으로 3등분  
 이 되는데, 셋째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로부터 약  
 100-16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이사  
 야의 셋째 부분, 40-66장은 모두 27장인데, 9장씩 3등분이 되  
 어, 40-48장, 49-57장, 58-66장으로 나뉘집니다. 그 중에서  
 둘째 부분인 49-57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건  
 져 올려, 회복시켜주심에 대해 증거합니다. 특히 54-55장은 구  
 원의 약속에 관한 아주 또렷한 말씀인데, 54장에서는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55장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즉, 54장이 미래에 대한 그림이라면,  
 55장은 현재에 대한 그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55장은 ‘초  
 청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1-5절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에 값없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당시 유대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는 매일 산해진미를 먹고, 큰소리치며 사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두 목마른 존재입니다. 단지 차이는 무엇에 목이 마른지 그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사람의 대부분은 양식과 돈으로 대별되는 세속적 가치관에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무와 과다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은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먹을 때는 물이지만 금방 목마름을 더 심해지고, 더 강렬한 것을 찾다가 세속에 중독되고 맙니다.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하십니다. ‘돈’은 ‘은(silver)’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은이 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도 돈이 없어도,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도 사라고 합니다. ‘물’이 ‘생명의 상징’이라면, ‘포도주는 ‘기쁨’을, 그리고 ‘젖’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이 풍요한 땅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오라’, ‘젖을 사라’ 등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에는 그 명령을 내리는 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쉬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전에 누리보지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본질적인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기쁨은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이며, 생명의 풍성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최상의 먹고 마실 것,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를 준비해 주시고, 오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은(돈)을 달아서 주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할 것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가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최고의 재료로 만든 음식, 자녀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흔히 맛있는 음식을 말할 때에 하는 표현으로 “한 번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듯이, 최상의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자녀가 그것을 먹으러 집으로 오직 않고,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품에 영양소는 하나도 없고, 먹으면 배가 아플 것이 틀림없을 음식입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바카지를 씌운 가격입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을 수십, 수백 배를 확대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참된 배부름을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얻지 못하면 애타해 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 영원한 즐거움은 나에게 있으니, 그것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서 듣고 또 들으라고 하소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 가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외에는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왕조가 순종황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듯이, 유다는 시드기아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게 결박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표면적인 다윗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영원히 유효한 것은, 그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순복 촉구(6-13)

하나님께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하라고 외칩니다.

(6)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라고 호소합니다. ‘찾으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면 곁에 계신 것이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드리면 다 듣고 계심이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으면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피부로 느껴질 때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는, 혹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과도 같습니다. 이런 은총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또 들어주실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자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곳이고, 용서 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9)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나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우주와 지구의 차이는 5대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과 한모금의 물과의 차이보다 더 큼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사람, 피조물이 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가장 바르게 또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래끼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져, 해결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의 부모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0-11)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을 적셔 땅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긴 식물은 그 물을 먹고 열매를 맺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역시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내시고야 만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말해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호언장담을 할지라도 말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말뿐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에서의 귀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12-13)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슬픔과 놀림,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기쁨과 평안을 갖고 나아가며, 이전에는 산과 언덕이 짓누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노래하는 것 같고, 이전의 식물은 가시나무와 짙레만 보였는데 이제는

잣나무와 화석류가 난다고 합니다. ‘가시나무와 짙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인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 이라(창 3:18)”을 연상하게 합니다. 반면에 ‘잣나무’는 ‘향나무’ 나 ‘전나무’를 연상하게 하는데,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나 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런데 ‘기념’ 앞에 작은 숫자(1)이 쓰여 있고, 아래에 보면 ‘이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 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 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 자기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을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 유와 우리 존재 자체를 드려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사지만, 그것 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 하신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물과 영원한 포도주과 젖을 값없이 샀

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바르게 새기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어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안겨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우리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기쁨과 만족을 누렸거나, 하나님 밖에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샀다가 낭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2.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대로 순종하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언제이었습니까?
3. 당신의 생각과 다르며, 당신의 길과 달라서, 당신의 것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경험했던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4. 하나님의 초청에 바르게 응답하며, 당신의 길보다 높은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모으시는 주 여호와

이사야 56:1-12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2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9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10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यो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



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49-57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54-55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면, 56장은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 여호와께 연합한 백성(1-8)

1절은 전형적인 선지자의 신탁 인용 도입구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작을 통해, 선지자는 선지자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여호와의 진정성과 권위에 기대어 선포하는 메시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1절의 메시지는 지난 1-55장의 주제를 요약해 줍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선포는 1-39장의 주제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는 메시지는 40-55장의 약속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 임박해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을 통해 현재적 명령으로써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에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기록될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됩니다.

(2)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은 주어진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출애굽기 31장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매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재편성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안식일을 염두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와 함께 요구되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은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

다.

지금울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롬 14: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구속력 있는 의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적 확신의 문제라고 언급합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일은 구속력이 없지만, 주일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여전히 유익할 뿐더러, 주일을 주일로 지키려는 믿음의 행동이 결국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 즉 복이 있는 사람은 혈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4-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혈통적으로 순수했던 이스라엘의 자  
손들만이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했  
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방인과 고자들을 예  
로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범주를 확대합니다. 그들에 대  
한 수식어는 “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후손을 낳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영원  
한 이름을 주어,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 합니다. 고자,  
곧 자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의 이름은 기념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비록 이 땅의 역사에서는 사라지지만, 영원  
속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한 차원 높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들도 하나  
님의 성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될 것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열납될 것  
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 원하며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의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짧은 논의가 마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포로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의미하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은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모은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모으심은 어떤 한 지역을 넘어 만민에게로 연결된다는 것을 “내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물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9-12)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선포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9-10)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현재 이스라엘 지도자의 상태에 대한 비난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국들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적들에게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공격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하는 파수꾼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즉 지도자들을 맹인, 병어리, 꿈꾸는 자, 누워 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에 빗대어 비유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늘 깨어, 서서 잘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도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분을 다하지 않는 파수꾼들은 직무유기 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고향을 찢고 있었습니다.

(11-12)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개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거나 의를 따르지 않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이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있으며, 오늘 같이 내일도 크게 넘치리라는 말에서 매일 취하여 살고 있음을 보면서 흐릿한 판단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몰지각한 목자들, 초반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지키거나 의를 따른다는 것과는 상반되어 있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따르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잊은 채, 자신들의 이익, 즉 굽은 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사는 이방인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흥청망청 삶을 살아내고, 그들의 삶의 영향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연합하여 사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의를 지키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에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본분을 다하는 삶이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삶의 여정을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삶이 요구되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맹인이 된 파수꾼, 병어리가 된 개와 같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몰지각한 지도자들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닌 우리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자 한다면, 독주와 포도주를 찾는 몰지각한 목자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놀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삶의 단면들을 함께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부신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몰지각한 목자들의 삶을 보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신발끈을 고쳐 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땀 때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악에서 떠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걷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있음 보면서, 삶의 단면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부신 부활을 증거하는 삶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에 대해서 묵상해봅시다.
2.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묵상해봅시다.
3.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묵상해봅시다.
4.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이 되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봅시다.
5.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여정을 먼저 걸으며, 세상을 향한 책임을 위하여 어떤 삶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사야 57:1-21

1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2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3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4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6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뭇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7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9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10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11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2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13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4 그가 말하기를 돌우고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15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18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인도적 행위를 일삼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 이사야 56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6장 후반부터 이어

진 57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학대와 속임수 등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시와 불경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의인의 길(1-2)

나라가 망할 정도로 아무리 사람들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의식이 무너졌다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의인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변함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며, 도리에 벗어난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1-2)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1절의 ‘거두어 감을 당하다’와 2절의 ‘불리어가도다’의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로써 ‘제거되다’ 또는 ‘사라지다’를 뜻합니다.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 제거되거나 사라져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그 사회는 정의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두려

위하지 않는 사회,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본문은 의인이 죽어 사라지는 것을 평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의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불이익을 받고 살아갈 때에는 의인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단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단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 불의한 자의 행위(3-10)

본문 57장에서 불의한 사람들은 3절에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책망하십니다.

(4)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의로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남을 희롱하는 사람, 입을 크게 벌려 목소리를 높여 남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5-9)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뿔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불의한 사람들이 동물의 기름과 식물의 향품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상숭배 의식  
으로 음행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창조  
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땅에 놓인 돌을 취하여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찌 마음  
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  
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한숨이 나온  
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상식과 도덕과 윤리의식을 벗어난 비이성적 몰상식적 행동을 한  
다면 이사야 시대의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치 없고 인  
생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언가에 애착을 갖고 그것을  
좃고 있다면 이사야 시대에 골짜기에 주운 돌을 하나님이라 말

하며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에 무분별하게 빠지게 되면, 자식 또는 가족을 죽여서라도 무언가에 애착을 갖고 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다보면 스올이라는 죽음에까지 따라갈 정도로 그것을 추구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것이 심각한 상태인 것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10)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10절의 의미는 이들은 헛된 것과 욕망을 추구할 때에는 ‘힘이 나고 지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기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져 남을 돌보지 않고 돈을 모으는데 힘을 쏟다가 실제 괜찮은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모으는 일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돈 벌이에 힘을 쏟는 지를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을 보고 한탄하시며 “내가 한숨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 누구를 두려워하는가(11-13)

(11)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오히려 헛된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짓된 삶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의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들을 수 있습니다.

(12-13) 네 공의를 내가 보이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공의를 보여주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공의를 행했기에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은 유익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행했던 모든 공의와 불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때에 의로운 일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다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욕망의 결과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인과 기업인이 어려움 당할 때에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영역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가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의지했던 사람이나 물질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누가 도와 줄 수 있겠습니까?

#### 하나님의 약속(14-18)

(14-15) 그가 말하기를 돌우고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에 빠진 세계에서 하나님 통치 영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신다는 점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소생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란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16-18)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탐심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 패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분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들의 영혼을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며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를 베푸시며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누구에게 평강이 있는가(19-21)

(19-21)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이미 고침을 받았 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악인에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곧 사라질 권력과 돈과 명예만을 위해 비인도적 행위를 서슴치 않는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획득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고 싶 습니까? 높은 자리, 돈과 물질, 자존심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까?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일로 어려움 당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받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허망하고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며 불의한 세상의 불의한 사람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1-2절에 '평안에 들어갔다'와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또한 평안과 단잠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받을 이스라엘의 상태는 훗날 심판받을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가 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3. 어떤 일을 행함으로 보람을 느끼며 지치지 않는 것과 탐욕을 위해 일하며 지치지 않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4. 나의 잘못된 행실에도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5.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15절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1-14

1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2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 될 날이라 하겠느냐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을 제하여 버리고 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  
 이 될 것이며 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  
 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  
 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  
 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  
 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  
 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이니라

#### 형식적 신앙-금식(1-9a)

3등분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40-66장은 또 3등분하여  
 40-48장, 49-57장, 58-66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58-66  
 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신앙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  
 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  
 을 여는 첫 번째 장입니다. 58-5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식  
 적인 신앙과 불의함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불의함이  
 그들에게 미친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9a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형식적인 신앙, 특히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 삶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첫 부분에 명령어가 3개나 나옵니다. ‘크게 외치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트럼펫) 소리와 같이 소리를 질러라’입니다. 즉 ‘있는 힘을 다해서’, ‘젓 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들지 말고, 심각하게, 반드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내 백성’, ‘야곱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과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허물’이 작은 잘못이고, ‘죄’는 큰 잘못일 것이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재는 그 반대입니다. ‘허물’이 우리말 개념으로는 ‘흉.허물’에서처럼 ‘약점, 실수’ 정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반역’, ‘변질’, ‘영역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에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

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입니다. ‘죄’를 뜻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새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죄를 알렸다”, “너희 허물을 알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올바른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바른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2절은 반어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즉 자신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외식적인 금식은 그들의 오래된 고질병과도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외식하며 슬픈 기색을 띄고, 얼굴을 흉하게 하여서 금식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께 자랑을 합니다. 금식은 신앙을 드러내는 아주 강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식하기도 쉽고, 거래의 조건으로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3b-5)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굽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3절 후반절이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유다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금식을 행하며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락을 구하다’는 것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드라마를 보는 일에 빠져 있고, 자기 취미생활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일을 시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노역을 시키거나,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독촉해서 받아 내는 것, 권세를 이용하여 재물을 착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먹질하며 싸우고, 누구의 목소리가 큰지 경쟁하듯이 다투었습니다. 그런 모습보고, 기가 차신 하나님께서는 “그럴 거면 금식은 왜 하니? 그런 금식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니?”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6-9a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증거합니다.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

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수사의문문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은 주인이나 권세자가 종이나 백성에게 부당하게 채운 족쇄나 결박을 의미합니다. ‘명예의 줄’은 소나 나귀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나 코뚜레인데, 그와 같은 것을 사람에게 채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는 부당한 이유로 인생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합니다.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 7절은 ‘내(하나님)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는데, 금식에 대한 내용, 즉 금식을 하려면 3일 정도는 하라든지, 최소한 3끼니는 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금식을 할 때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금식은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8-9a)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어두움이 견힐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치다’는 ‘터지다’의 뜻입니다. 즉 이전에는 내 삶이라는 빛이 어둠이라는 가족에 덮여 있었는데, 바른 금식을 통해서 그 가족의 실밥이 터져서 빛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치유가 급속하다’고 합니다. ‘치유하다’는 땅이나 고목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크고 작은 상처로 살이 찢기고 뜯겨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거기서 새 살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 없는 이름’이셨는데, 이제는 ‘대답 있는 이름’,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 평화와 자비 실천, 안식일 준수(9b-14절)

9b-14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어떤 약속들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주린 사람에게 심정이 동한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흉내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하고,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두움이 되지 못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또 그와 같은 사람은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황무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꽃을 피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뼈가 없거나 부러지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견고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견고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물 댄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귀한 중동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사는 사람은 갈함도 없고,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과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인생이 황폐화 된 것 같아도, 또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인생은 다시 세워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안식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3-14)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안식일(주일)은 ‘내 성일\_ 거룩한 날’이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주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출발과 마침은 그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주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을



자신을 위한 쾌락의 날로 삼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인생이 승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았던 것에서,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는 세상과 놀았다면, 금식은 하나님과 놀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놀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금식,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날이 되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노는(교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금식을 비롯하여 여러 종교행위를 하고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그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셔야 한다고 착각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행위를 하기보다, 또 우리 자신을 의뢰하기보다 우리의 온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묶인 인생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자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무너지고 황폐화된 곳을 세우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어떤 종교행위나 봉사를 하고서,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에서 어떻게 승화되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른 사람들의 묶인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고, 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3. 당신에게 안식일(주일)은 어떤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새롭게 바꾸거나, 더욱 지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을 주어로 삼음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나는 여호와라

이사야 59:1-21

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9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 10 우리가 맹인 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1 우리가 곱 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

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 이는 우리  
 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  
 나이다 13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  
 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14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얽드  
 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15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  
 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  
 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  
 스스로 의지하사 17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  
 시고 18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  
 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20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지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삼자대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언자 이사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삼자가 마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극화하자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대화를 이어보면 다

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씩씩합니다. 뭔가 속이 뒤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곤고함과 삶의 힘겨움을 알기는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까?" 바로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1-8)

(1-3, 새번역)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하나님 잘 못 없음, 하나도 없음. 모두 너희 잘 못임! 다 너희 죄악이 문제임! 그 입 다물라." 입니다. 매몰찬 일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꼬리를 내립니다. 바로 무

를 꿰고 자복합니다.

#### 죄를 고백 (9-15a)

(11-13, 새번역)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박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구원의 선포(15b-21)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음을 보십니다. 중재자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저들 안에 소망이라고는 한 터럭도 없음도 보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음성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16) "나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20-21, 새번역)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렇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그려지십니까?

(배경) 이스라엘 백성 등장, "하나님, 미워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1-8) 예언자 이사야 등장, "하나님 잘 못 없다. 다 모두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심각한 게 문제다."

(9-15a) 다시 이스라엘 등장, "맞습니다. 잘 못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15b-21) 하나님 등장, "안다. 봤다. 너희의 죄악과 무지와 무능력을 안다. 너희 스스로 구원할 능력 없음을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본문의 배경은 극심한 삶의 고난과 신앙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푸념에서 시작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으로 귀환은 했습니다(사40장). 귀환은 감동과 영광의 시간이었던만 이어진 삶의 자리는 고난과 좌절의 현실입니다. 가뭄과 흉작(학개 1:9-11)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유대 땅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귀환한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과 반목, 생존경쟁이 극심했습니



다. 여기에 성전재건도 인력, 재력의 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방 토주들이나 권력자들의 착취와 학대는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무너진지 오래고 신앙마저도 흐릿해져가며 기복적 사고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뒤숭숭한 민심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칼을 빼어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뼈를 때리는 준엄한 예언적 설교를 토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손, 손가락, 입술, 심지어 혀가 모두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폭로합니다. 총체적인 죄악입니다. 어디 한 부분은 고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구제불능이 맞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전부 죄악으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거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여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이지경이 되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17)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무장한 전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전사가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4)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자, 열정의 표현입니다. 총체적으로 죄로 가득한 그 못난 백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사회, 흑암의 사회, 답이 없는 최악으로 가득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푸념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힘겨움과 무거움이 우리의 불만과 한숨, 신음일 수는 있으나, 도리어 그 고단한 현실들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악착스럽게 고집하는 '나', 평생을 그 '나'가 주어되어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악랄한 최악의 인생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죄악과 못남, 그리고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직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만 향하십시오. 오늘도 죄로 가득한 이 땅과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43:11)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로 가득한 죽을 죄만 쌓고 있는 구제불능의 인생이 우리 인생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그 복음과 은혜의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애타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3) 혹시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답이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이스라엘의 자복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9-15). 내 안에 자복할 죄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16)
4.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43:11), 이는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다른 구원자를 찾고,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22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6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실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10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1 네 성

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 12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  
 리라 13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  
 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  
 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  
 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5 전에는 내가 버림  
 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  
 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  
 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7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  
 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18 다  
 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19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  
 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  
 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  
 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  
 즉 22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  
 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 일어나 빛을 발하라(1-9)

이사야 59장 말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59:20). 하나님은 의인화된 시온을 향하여 장차 있게 될 영광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빛은 이스라엘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재하여, 이 빛을 받은 이스라엘이 빛나는 존재가 됨과 동시에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낙성식을 행할 때는, 성전에 구름이 가득차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큰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빛(겔1:4)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앞을 식별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시온만 환하게 빛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만민은 유일한 빛을 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올 것입니다.

(2-3)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시라

빛을 내는 존재로 살라는 하나님의 초청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b) 말씀해주셨고,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출19:6)의 비전을 주신 바 있습니다. 수가 많고, 강성해서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어도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또한 일어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현실은 늘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한 절망감을 호



소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어두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밝혀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을 때,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를 묘사한 출애굽기를 보면, 묘한 대비가 나옵니다.

(출 10:22-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삼 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 위에 환한 빛을 비추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내가 받은 구원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추어져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를 통해 밝게 빛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비출 때, 여러 이방에 흩어졌던 자

손들이 각기 그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쪽 지중해의 바다의 부가 돌아오며, 미디안과 스바와 같은 남방의 나라들도 많은 낙타와 고대 중동에서 최상의 예물로 꼽히는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 유목민들은 양과 숫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나아오는 것은 오직 찬란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9) 곧 섬들이 나를 양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 없이 사는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경제적 번영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영화는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충실히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질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시온으로 몰려드는 여러 나라들(10-22)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이집트와 아시리아, 신흥 강국 이었던 바빌로니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힘이 있었다면, 자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굴종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유다는 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종으로 살게 된 후로는, 이런 굴욕적인 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내해야 했던 굴종을 다른 나라들에게 되갚아 주는 제국의 방식,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감사의 행렬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11)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

열방은 예루살렘으로 나아와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만민이 나아와 예배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읍임을 알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14)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실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시오니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삶의 관습,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는 질서들을 상대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 애써야 함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깥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과연 외부적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 방안들을 사용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우리들의 삶으로 체화된 진리를 드러낼 때에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한 번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삶의 방식이 재편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창세기에서 약속되었던 땅에 대한 약속이 되풀이 되며 성취될 것입니다.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런 아름다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우리 힘만으로 가능하  
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삶이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야만 이를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는 조금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경이로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  
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밝히 비추이는 경이로운 삶의 현장으로  
바뀌나가는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  
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파가 거칠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떠밀리며 살아온 인생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주변을 밝히는 순교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이 때문임을 인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백색 순교자의 길을 잘 걸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게 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경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닮은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여호와와 영광이 빛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1) 그리고 이 명령은 구체적인 삶의 언어로 치환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었습니까?
2. 시온의 경제적인 번영(5-9)을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보고, 이 경제적인 번영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생각해보세요.
3. 세상 모든 나라들이 멸시하던 이스라엘이 존중을 받게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13)
4.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21)

##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1-11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  
 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  
 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  
 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  
 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 그들은 오래 황  
 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  
 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  
 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 너희가 수  
 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 그들의 자손  
 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



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1 땅이 짝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 메시아의 구원 사역 예언(1-3)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인 58-66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6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온이 세계 여러 나라에 보여 줄 빛 됨의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61장과 62장은 메시아가 가져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구원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풍성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a)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빌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위임

을 받는 장면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6장에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1절 이후에 나오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셨는데, 읽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것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줍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성령)이 내리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지 않아도 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다. ‘기름을 붓다’가 ‘마샤흐(mashach)’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메시아’입니다. 당시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직책과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하고, 영원한 왕이시자,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출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나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역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고 싶은 일

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1번의 사역이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결코 들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앞에 (1)이라는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원 의미가 ‘겸비한 자’라는 뜻입니다. ‘겸비(謙卑)’는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낮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낮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금방 압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인생이 뭔가에 가로막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할 때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라고는 ‘혀 차는 소리’ 밖에 없습니다. 그 때 비로소 복음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 심포니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낮은 실상을 알고, 주님의 소식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가

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이 말하는 소리에 정신이 팔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구체적인 사역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b)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합니다. ‘상하다’는 단어는 ‘도자기나 질그릇을 땅에 던져 깨뜨려,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난 것이 도자기나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심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니 우리 주변만 해도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 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삶이 갈기갈기 찢겨서 그것이 본래 어디에 붙어 있던 부분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메시아는 조각난 우리의 인생으로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포로 되고 갇힌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놓아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바빌론에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여,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는 죄와 사망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

여 줍니다. 세상에는 각종 중독, 이를테면 약물중독, 도박중독, 성중독, 게임중독, 쇼핑중독, 심지어 드라마중독 등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야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것처럼 포로가 되어 있고, 갇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 거기서 빠져 나와 자유를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 하고,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 하듯이, 그 안식년이 7번이 되는 49년의 다음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었고, 토지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자유의 해요, 기쁨의 해요, 복음의 해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메시아가 선포한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하십니다. ‘슬픈 자’는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는 극복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아무리 슬픈 상황에 있을 지라도 메시아는 거기에서 충분히 건져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서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옷을 찢거나 머리에 재를 뒤집어썼습니다. 7남3녀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린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했고,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라비 압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재를 뒤집어썼고,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모르드개는 재를 뒤집어쓰고 통곡했습니다. 화관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장원급제를 하면, 임금이 하사하는 종이꽃인 어사화를 썼는데 그것이 연상됩니다. 메시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더 이상 사로잡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의가 열매가 되어서 맺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라나는 ‘의의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 메시아를 통한 회복 예언(4-11)

이러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즉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뜻하지만, 아무리 황폐화된 것 같은 인생,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삶도 메시아는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에게 짓눌려서 살았을지라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가 되면 그 나라들 위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았을 지라도 이제는 그 나라들이 재물을 갖고 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9)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들여다 보고서,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가득하군요”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더욱 그 인생은 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황혼녘에서 처가살이를 하던 모세가 어떻게 민족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떻게 왕들의 표본이 되며, 신앙의 사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배운 것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같이 주님의 반대편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10-11)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위해 예복을 입을 때입니다. 그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옷을 입을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그 주님을 삶으로 높이는 증인으로, 산 순교자로 살아가시는 사순절 주간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모두, 상한 마음을 안고 평생 원망과 좌절, 절망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과 영원하지 못한 것에 포로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인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주님과 오늘 하루도, 올 한해도, 우리의 평생,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사회와 이 민족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명실상부한 삶의 제사장이 되며, 주님의 마르뒤스, 증인으로, 산 순교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메시아이신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을,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치유를, 포로 되고 갇힌 사람에게는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은총을 입었습니까? 혹 아직까지 매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2. 메시아이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3. 메시아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구별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해를 받은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공의와 의의 옷을 입히시는 신랑

이사야 62:1-12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 즉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 사람들이 너를 일  
켜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켜  
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정의가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여 빛을 바라나  
깜깜함 가운데 행하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예루  
살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과 의의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사 59:16-17). 이제 그 모든 일은  
준비된 중,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맡겨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준비하는 세밀함으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대  
리자에게 자신의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62장에서는 그 여  
호와의 영이 내리신 기름부음 받은 중이요 신랑이 어떻게 자신  
의 신부를 즐거워하며 단장시키는 지를 보여줍니다.

#### 기름부음 받은 신랑의 열심(1-5)

(1-2)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해 행하시는 일은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불경건하고 추악한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의의 옷을 선물하심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은 영화의 예고편처럼 첫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발견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한 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자신의 벗은 몸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가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만든 연약하고 삭아버릴 나뭇잎 치마를 대신하여 희생시킨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참 된 열매를 낼 수 없는 무화과가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구원자를 보기 원했던 세상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자 이름 뜻만 “깨끗함”이었던 삭개오는 그의 본성이 변하여 기쁨으로 울법을 뛰어넘는 변상을 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눅 19:8).

이러한 일이 드러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쉬지 않고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구원이 지체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백성

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확실히 바라며 인내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변화는 캄캄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활활 타오르는 햇불처럼 극적일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의 사역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신분을 가져다주고, 눈에 보이도록 삶 속에 의가 드러나며,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는 3절입니다.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시온이 아름다운 관이나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 또는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확실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왕관이라는 것은 왕적 신분을 드러내며, 왕관을 써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선한 주인이 돌아와 가시와 엉겅퀴만 낼 수 있던 황무지인 시온을 회복시킴으로 이제 새롭고 비옥한 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간음하여 떠난 신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신랑으로도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호 2:19)”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자 “버림 받은 자”에서 “헵시바”라고 부르십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모든 신부가 신랑에게 듣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성육신하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시 16:3)”

황폐한 황무지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의 “뿔라”로 환경이 바뀝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하는 것이 나오고, 실제 혼인 생활의 기쁨이 들어가 신랑이 신부를 즐거워합니다.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이 확장되어 시온은 그녀의 아들들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가 구원하여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한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 예루살렘의 역할과 여호와의 은혜(6-12)

(6-7)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그 구원과 의의 사역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아직 전쟁이 마치지 않았다면 군사는 쉴 수 없습니다. 경기 중인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전에 성급히 승리의 세레모니를 취할 수 없습니다. 칼집에 들어가서 쉬기 전까지 칼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일은 특별히 우리에게서 증인과 기도의 사역으로 교훈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이면서 굳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설명하는 에스겔 36장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황폐한 땅을 에덴동산 같이 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겔

36:37).

또한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명예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시간마다 품꾼을 모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이루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찍 부름을 받을수록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선한 뜻을 즐거워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으로 일하여, 약속한 값인 구원을 베풀어주기를 소망하는 명예로운 하루입니다. 시온은 온 땅을 위한 의와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8-9)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거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약속대로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힘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자 많은 열매를 낼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완벽히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자랑하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옛적 성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만족해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거룩하신 이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백성과 만민은 모든 준비가 끝난 순례길에 오르는 호출, 즉 여호와와의 구속 받은 자들로서 함께 여호와와의 영원한 도성으로 오라는 호출을 받습니다.

(10-11)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시온이 열방을 반갑게 맞을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묘사하며 완성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열방이 오게 될 이 여정은 어떤 장애물이나 불확실성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땅이 다져져서 길이 닦이고, 큰 길이 놓여 그 길 위로 백성과 만민이 함께 순례의 길에 올라섭니다.

이들이 만민과 열방을 위하여 드는 기치, 깃발과 장대는 먼저는 이사야서 10:12에서 이야기하는 “이새의 뿌리”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이제 열방이 그 빛이 근원이신 분을 찾아 나아올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을 증거 하는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주님의 증인, 순교자인 우리 역시 그 깃발이 될 것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그 햇불처럼, 등대처럼 빛을 발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펼럭이는 깃발이 바로 우리입니다.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거룩한 백성, 찾은 바 된 자, 버림 받지 않은 성읍은 시온으로서, 시온의 구원이 곧 이방의 구원이며 시온에게 내려온 이름이 바로 여기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불의한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자리를 밝히고 펼럭이는 깃발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거짓을 행하며 불의와 불경건함을 일삼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랑스런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주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기쁨을 저희에게 있다고 고백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증인과 순교자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목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 시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3.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4. 시온이 열방을 맞이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을 볼 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증인의 모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 심판과 구원

이사야 63:1-19

1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3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6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7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8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10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11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 여호와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15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18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19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 심판과 구원(1-6)

오늘 본문은 두려운 형상으로 무장하신 하나님께서 에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하신 후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선지자가 묻습니다. ‘에돔과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질문에 주님께서 네가 본 ‘그가 바로 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공의롭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장자 에서가 세일 산에 정착한 이후 그 주변을 차지하고 거주해 온 에서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성읍입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무던히 괴롭혔습니다. 에돔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에돔을 대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 악을 자행하는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타 민족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또 다른 일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3절 상반

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a)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마치 포도즙들을 짓밟듯이 심판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판자가 의로운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을 도울 수 없기에 단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3절의 '더럽혔음이니'와 4절의 '내가 구속할'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대적의 선혈로 더럽혀진 것과 그의 언약 백성이 구속함을 받은 것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과 구원 사역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5, 새번역)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더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심판과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지탱시켜 준 것은 사람이나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 큰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살아가면서 생긴 상처나 비교 의식 등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민족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안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심판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 사랑과 자비(7-14)

환상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민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셨던 구원과 사죄를 회상했습니다.

(7)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말하겠다는 선지자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

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비’로 번역된 ‘헤세드’는 환경과 형편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신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 버리고 세속의 길로 달려가 버린 이스라엘 자손의 변덕스러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은 찬송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흥에 겨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여 심령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나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이 당한 모든 환난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가해진 해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고통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

백하고 있습니다.

(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안으셨으나’에 해당하는 단어는 ‘업다’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견고한 날개로 업어 나른 것처럼 보호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옛적 모든 날에’라는 표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 인도하시되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마스크를 통해 아픈 자녀를 하루도 빠짐없이 업어서 등하교시킨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도 참 훌륭하지만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는 인생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대체가 불가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시게’하였습니다(10절). 근심하게 하였다는 것은 돌이나 나무 표면에 조각도로 무언가를 새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반역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상처를 입으신다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4) 여호와와 그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근심케 하는 백성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결국 목자가 초원으로 양떼를 이끌 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다 시금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14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 우리의 아버지(15-19)

15절에서부터 64장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에 호소하면서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찾았습니다.

(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세속의 길로 빗나갔지만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신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본래 신분으로 회복해 주셔야 한다는 간구입니다. 또한 옛날부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알려졌기에 이스라엘이 비록 죄악 길에 있으나 본래 신분으로 회복해 주셔야 한다는 간구입니다. 19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로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길 소망하는 간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며 민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가감하지 않고 민족의 악행을 고했고, 세속의 길에 선 이스라엘을 숨김없이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를 받기 위해 자녀 된 백성이 해야 할 우선순위는 회개입니다. 세속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기에 주저함 없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단정하고,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속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단정히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의 기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죄악의 길, 세속의 길에서 헤 메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충만하신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고 단정하게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인류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이사야 선지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결론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과도 싸우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2.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길 바라는 나의 대적은 누구(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굶어 살피신다면 내 삶의 어느 영역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4. 오늘도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길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오늘 간구할 중보 리스트를 적어보십시오.

##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사야 64:1-12

1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 불이 섰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 주 외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5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8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0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 우

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 이사야의 중보기도1-주의 강림(1-4)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인 58-66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63:15에서부터 오늘 본문 6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떠올리며,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3:15)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구절에는 명령어가 두 개 있습니다. ‘굽어 살피시옵소서’와 ‘보옵소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빌론에서 중노동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굽어 살

피며, 자기 백성을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굽어 살핌’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에서 포로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이 아스라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1)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1, 우리말성경) 주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으로 대변되는 바빌론과 같은 세상 권력은 벌벌 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강림하시지 않으셨고, 아직 도움의 팔을 내밀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직설법 부정문으로 표현하지 않고, 기원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림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며, 그곳의 여러 강변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금(하프)을

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때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산들이 진동하도록 강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역사를 신묘막측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 불이 쉼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경우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히 ‘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불의 가장 큰 특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불이 붙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불을 제어하는 것이 물인데, 그러나 강력한 불 앞에서는 물도 말라버리고 맙니다. 불과 같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방 사람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에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하나님이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내 손에서 장을 지진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딱 1번 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 손에서 지진 장맛을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3-4)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셨듯이, 이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 이사야의 증보기도1-사죄의 간구(5-12)

5-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음을 자인하고,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5)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하나님의 백성)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라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죄, 그 불순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만성적인 고질적인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도 ‘이미 오래된, 습관화되었으며, 고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무엇’, ‘오래된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1-2개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앞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미 오래된 것’, ‘오래된 불순중’ 때문에 우리가 무엇과 같이 되었는지를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부정한 자와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뜻합니다. 당시에 격리의 대상이었던 한센병(나병)환자들과 제물로도 드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동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는데, 이것은 세척 대상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전부 빨아야 할 누더기 옷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셋째는 앞사귀와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풀과 꽃은 유한함의 대명사처럼 언급합니다.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다. 화병에 꽃혀 있는 꽃이 아무리 싱싱해 보이고, 예뻐 보여도 불과 1-2주일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넷째는 몰아가는 바람과 같다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와 같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에게 소멸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수요성경공부(구역성경공부)에서 사무엘상 중에서 사울왕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에서 최고의 패착은 자신의 인생과 믿음이라는 바둑돌을 하나님께 올려놓지 아니하고, 자기 야망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바둑돌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옮겨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깊이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8)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진흙이었던 우리를 토기로 지으신 하나님님이 토기장이시기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은 자신이 토기로 만든 흙의 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그것이 강도

가 어느 정도인지, 용량이 어느 정도이며, 용도가 무엇인지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은 더욱 소망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할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청합니다.

(9)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죄악을 잊어버려 주셔야 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사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다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부모와의 관계

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용서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12)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와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무너질 때 사이에는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성전이 불에 탔으며’ 등, 이와 같은 일은 미래의 일임에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시제 (prophetic perfect)’라고 하는데,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심한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아버지로 여기며 우상숭배했고, 자

신들을 토기로 지으신 분의 뜻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 오늘도 산 순교자로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원하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이 아주 또렷하게 느껴질 때나, 아스라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질 때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심을 중심으로 받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시는 토기장이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빛으신 결과임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빛어져 가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3번 읊조려 보십시오.
3.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빚어져 오셨는지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4. 오늘도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1-25

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10 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늙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  
 와 11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갖에게 상을 베풀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12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  
 인즉 다 구푸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  
 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13 이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 보라 나  
 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6 이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  
 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  
 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  
 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  
 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  
이 누릴 것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  
씀하시니라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인 58-66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어제 본문 이사야 64장  
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  
지는 바빌론 포로생활 이었음에도, 건져 올려주실 것을 믿고 기  
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은 이러한 기  
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1-7)

(1-2)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뵈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

다. 나아가 자신을 부르지 않고 있던 나라에게까지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시며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면서 기다리십니다. 패역하다는 ‘다루기가 어렵다, 반항하다, 고집이 세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3-5)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를 하면서 십계명에서 금지한 우상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행위를 하였으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항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심판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에서 백성들의 기도에 답이 없으셨던 것은 결국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헤아리고 반드시 보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 배교하는 종과 신실한 종(8-16)

8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과 배교하는 종에 대해서 극명한 비교가 나타납니다.

(8-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굽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나님은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

는 것보다도 같습니다.

(이사야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씨가 남게 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씨를 내어, 남은 자들이 거기에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 뿌릴 종자를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농부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지만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과 사랑,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종의 모습은 본문에서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13-14)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종과 따르지 않은 종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지들은 먹고 마시며 기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종은 주리고 목마르며 슬픔 가운데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16) 이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환난을 잊게 하시며 눈앞에서 숨겨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땅에 있는 것에 맹세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삶, 즉 주님의 증인이자 백색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 새 하늘과 새 땅 창조(17-23)

17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17-18)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창조라는 단어는 1인칭 단수이며 하나님만을 주어로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공간에서 살아갈 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이전 것들이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포로가 되어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난, 죄와 슬픔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우고 싶은 기억들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전 것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통해 생기는 변화는 백성들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에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1-23)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한 삶을 살았고,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했으며 언제 습격을 받아 자신의 거주지를 내주고, 추수한 것을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더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4-25)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는 오랫동안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빛만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며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삶의 회복, 땅의 회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은 자들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

리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감을 생각할 때 땅의 개념으로 어떤 건물을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연합성전으로 각자의 부분을 세워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심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고집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자들이 있듯이 우리도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의 삶에서 약하고, 매일 쓰러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3.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4.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묵상하고 실천해 봅시다.

#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사야 66:1-24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랴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  
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  
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  
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  
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5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  
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 떠  
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  
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7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8 이러한 일

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나라가 어찌 하  
 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  
 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  
 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달겠느냐 하시니라 10 예루살  
 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  
 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1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빨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못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  
 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서 놀 것이라 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  
 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  
 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15 보라 여호와께  
 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  
 이라 16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17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  
 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 내가 그들 가운  
 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  
 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룯과 및 두발과 아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하리라 2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와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2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24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1-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40-66장은 회복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66장 말씀은 마치 전체 이사야서의 축소판처럼 ‘심판과 회복’이란 말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14절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 15-24절은 심판과 회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교하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회복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전반부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1a)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저는 키가 큰 편이지만, 2평 남짓한 방이라도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높고 큰 하늘이 자신이 앉는 의자가 되고 땅이 고작 자신의 발 받침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은 성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b)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은 2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b)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방법과 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힘으로 누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만 예배하는 자들을 심판함(3-6)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에게 이것은 가증한 우상숭배와 같으며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4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합니다.

#### 회복된 예루살렘의 기쁨(7-14)

이사야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임산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로 비유합니다. 7-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은 남자아이를 진통 없이 순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성이 금방 회복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활기가 넘치는 도성이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11-13절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 불과 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15-18a)

이사야 선지자는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고 말하며 엘리야의 승천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신 것처럼 불과 칼의 심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죽이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표준새번역 성경에서는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 새번역)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했고 스스로 정결하게 했지만,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나뵤의 신앙을 갖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였지만, 결국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참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아예 대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

도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고 뒤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는 모습 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a)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외식적인 그들의 일과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1절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으실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생각들을 다 아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아실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식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마 23:27)’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깐 그냥 좋은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사용하심(18b-21)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가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운 이방인’이라 불렀던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서 온 세상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셨지만, 이제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이사야서의 결말은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의 한 달란트를 가졌던 중처럼 불순종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달란트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잘 순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22-24)

오늘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인 22-24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복과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미칠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2-23)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꾸준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예배는 결코 없어지  
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인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죄를 짓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최후의 심판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나누시고 염소(악인)는 영원한 형  
벌에, 양(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염소나 양이나 모두 똑같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찾지만, 참 신  
앙의 실천이 없었던 염소들은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  
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피상  
적이며 외식하는 위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이  
사야서 전체를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매일 매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외식을 범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저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1-2절)
2. 하나님께서 심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7절)
3.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18절)
4.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